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것임.

北韓調查研究—政治

# 國內外 與件이 北韓의 對南 및 統一政策에 미치는 影響

研究執筆責任

金 學 俊

(略歷) 서울大 文理系 政治學科卒 (1965)  
서울大 大學院卒 政治學碩士 (1969)  
美國 哥倫比亞大學院卒 政治學博士 (1972)  
서울大 文理系 助教授 (1973~)

刊行責任

尹 璟 泰 (政策企劃室 第2擔當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 目 次

第1章 序 論 .....	3
I. 問題의 提起 .....	3
II. 北韓 統一政策「環境」의 構成要素 .....	4
III. 比較 外交政策論의 次元에서 본 變數들 .....	6
IV. 本稿의 構成 .....	9
第2章 北韓「人共」의 樹立에서 韓國戰爭勃發 以前까지 (1948.9.9~1950.6.24)의 北韓의 對南政策 .....	10
I. 北韓 對南政策의 概觀 .....	10
II. 變數들의 分析 .....	15
第3章 韓國戰爭期(1950.6.25~1953.7.27)에 있어서 北韓의 對南政策: 그 性格과 政策決定의 變數를 中心으로 .....	23
第4章 休戰에서 4.19革命까지(1953.7.27~1960.4.19) 에 있어서 北韓의 對南政策 .....	32
I. 北韓 對南政策의 基本性格 .....	32
II. 北韓 對南政策의 概觀 .....	32
第5章 第2共和國時代(1960.4.19~1961.5.16)에 있어서 北韓의 對南政策 .....	40
I. 北韓 對南政策의 背景 .....	40

第6章	5.16以後 1960年代(1961.5.16~1970.11월)	44
	에 있어서北韓의 对南政策	
I.	北韓 对南政策의 基本性格	44
II.	北韓 对南政策의 展開	44
第7章	東北亞秩序의 改編과 南北對話의 開始	55
I.	國際環境의 變化	55
第8章	結語	63

# 第 1 章 序 論

## 1. 問題의 提起

1948年 9月 9日 北韓 共產主義者들이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을 樹立한 以後 오늘날까지 北韓의 統一政策( 또는 對南戰略 )은 그 政策의 最高目標과 最低目標 사이에서 北韓의 內外條件에 따라 變調를 보여 왔다. 政策의 基本性格을 「 변화하는 環境의 적절한 管理」라고 정의할 때, 北韓의 統一政策이 政策「環境」의 變化에 따라 變調를 보여왔다는 것은 당연한 論理의 歸結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關心을 갖게 되는것은 대개 다음과 같은 質問속에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北韓의 統一政策의 「環境」은 무엇으로 構成되어 있는가?

둘째, 北韓의 統一政策의 「環境」은 어떻게 變化되어 왔는가?

셋째, 北韓의 統一政策의 「環境」의 變化에 따라 統一政策 自体는 어떻게 變化되어 왔는가?

네째, 北韓의 統一政策의 「環境」의 變化에 따라 統一政策 自体가 바뀌었다고 할 때, 政策變更決定에 影響을 미치고 있는 것은 어떠한 變數( Variable )들인가?

本稿는 기본적으로 이 네개의 물음에 對해 答하려는 하나의 試圖이다.

## II. 北韓統一政策「環境」의 構成要素

위의 네가지 質問中 우선 첫째 質問에 對한 解答을 시도하기로 한다. 그 까닭은 北韓은 이 質問에 對해 비교적 일관된 答辯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北韓 統一政策「環境」의 構成要素들을 하나의 常數 (constant variables) 로 설정하고 나머지 物을 對해 對한 答辯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北韓統一政策「環境」의 構成要素들을 가장 精確히 지적한 代表性的 것으로 1965年 4月 14日 인도네시아의 아리 아루함 社會科學院 (Ali Archan Academy of Social Sciences of Indonesia) 에서 行한 金日成의 演說을 지적할 수 있다.

여기서 金은 北韓政權의 궁극적 目標은 「社會主義革命의 過程을 통한 朝鮮全體의 統一」이라고 말하고, 그러한 目標가 達成되기 爲해서는 (1) 北韓에서의 「社會主義建設의 強化」 (2) 南韓에서의 「共產革命勞力의 強化」 (3) 國際共產革命勞力과의 團結強化 등 세가지 要件이 達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

여기서 金은 北韓統一政策「環境」의 세가지 構成要素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1) 北韓內部的 要素 (2) 南韓內部的 要素 (3) 國際環境의 要素가 바로 그것이다.

이 세가지 要素들은 어떻게 더 세분될 수 있을까? 다음에서 시도하기로 한다.

(1) 北韓內部的 要素

A. 常 數

- ① 地政學的 常數(예컨대, 東北아시아의 位置, 北韓의 크기, 半島의 性格, 自然地理의 條件 등)
- ② 理念的 常數(예컨대, 마르크스-레닌主義, 金日成「主体」思想 등)
- ③ 政治的 常數(예컨대, 「無產階級의 獨裁」, 「人民體制」 등)

B. 變 數

- ① 指導層內의 不和 또는 對立(예컨대, 對南強硬派 대 對南穩健派의 對決, 國內安定優先派 대 「兩朝鮮革命」優先派 등)
- ② 經濟的 成就度(예컨대 經濟的 失敗 또는 經濟的 成功)
- ③ 軍事的 成就度(예컨대, 軍事「現代化」 등)

(2) 南韓內部的 要素

A. 常 數

- ① 地政學的 常數(예컨대, 東北아시아의 位置, 南韓의 크기, 半島의 性格, 自然地理의 條件 등)
- ② 理念的 常數(예컨대, 自由民主主義, 反共 등)
- ③ 政治的 常數(예컨대, 階級史觀의 不容 및 民主體制)

B. 變 數

- ① 政治的 安定度(예컨대, 執權勢力內의 結集度, 與·野의 關係, 政治體制에 대한 大衆의 支持度 등)
- ② 經濟的 成就度(예컨대, 經濟安定, 貧, 富隔差의 發生 또는

解消등)

③ 軍事的 成就度 (예컨대, 國軍「現代化」등)

### (3) 國際環境의 要素

① 國際政治의 環境變數 (예컨대, 兩極體制, 多極體制, 中·蘇紛爭, 第3世界등)

② 隣接環境 變數 (예컨대 南北韓의 對決, 對中共 그리고 對蘇 隣接性등)

③ 南韓과 北韓의 友邦과의 關係 (예컨대 韓·美, 韓·日關係등) 위에서 살핀 이러한 諸常數와 變數들이 複合적으로 北韓政策決定 過程의 「投入」(Input)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尙정할 수 있을 것이다.

### Ⅲ. 比較外交政策論의 次元에서 본 變數들

여기서는 北韓의 統一政策의 決定要因들을 James N. Rosenau 가 各國의 對外政策을 比較하기 위해 開發한 模型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Rosenau 散授는 各國의 對外行爲를 설명하는 變數로 個人 (Individual) 變數, 役割 (role) 變數, 政府 (governmental) 變數, 社會 (societal) 變數, 國際體制 (systemic) 變數의 다섯 變數를 지적하고, 各國의 經濟狀態와 政體의 性格에 따라 그 變數들의 重要度에 差異가 있다고 說明하고 있다. 그의 主張을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다.<sup>3)</sup>



地理 物産的資源	큰 나라 (Large Country)			작은 나라 (Small Country)		
	既開 兪國		低開 兪國	既開 兪國		低開 兪國
經濟狀態	公 開 (Open)	閉 鎖 (Closed)	公 開 (Open)	閉 鎖 (Closed)	公 開	閉 鎖
政體性格	Role	Role	Individual Role	Individual Role	Individual Systemic	Individual Systemic
重要性에 따른 變 數들의 順位	Societal Governmental Systemic	Individual Governmental Systemic	Individual Societal Governmental Systemic	Individual Societal Governmental	Individual Societal Governmental	Individual Systemic Role Governmental Societal
例	美 國	蘇 聯	印 度	中 共	네델란드 체코슬로 마	가 나 케 나

北韓을 「작은나라」→「低開發國」→「閉鎖政體」의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할 때, 北韓의 對外行爲를 결정하는 變數들을 그 重要性에 따라 ① 政策決定者의 個人變數 ② 國際體制變數 ③ 政策決定者의 役割變數 ④ 政府性格 및 政府構造. 機能變數 ⑤ 社會的 變數로 順位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Rozenan의 모델이 北韓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北韓의 政治에서 더 나아가 北韓의 社會全般에서 金日成이 차지하는 位置를 생각할 때, 北韓의 對外行爲決定에 있어서 金日成 個人의 變數가 어떤 다른 變數보다 압도적이라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金日成의 一人 支配獨裁體制가 강화되면서 「個人變數」는 더욱 더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Rosenau의 모델에 따르면 北韓의 對外行爲決定에 있어서 「社會的 變數」는 그 重要性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의 統一政策(또는 對南戰略)의 形成에 있어서 「社會的 變數」의 重要性은 低評面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 까닭은 對南 赤化(그들의 表現으로는 「人民解放」 「民族解放」)라는 政治的 價値가 北韓民衆들에게 철저히 「教化」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北韓 社會全般에 침투되어 있는 「反美救國民族解放」이라는 일종의 「使命·歷史意識」은 비록 그것이 支配엘리트에 의해 教化된 것이라 하여도 겨우로 北韓의 政策決定體에 대해 壓力을 가하는 일종의 「要求投入」(demand input)의 役割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 IV. 本稿의 構成

本稿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變數들을 念頭에 두고, 앞(I)에서 提  
起한 問題點들을 時期別로 다루는데 그 目的이 있다. 本稿의 年代  
期別 構成은 다음과 같다.

(1) 第1期 ( 1948年 9月 9日 ~ 1950年 6月 24日 ) :

北韓「人共」의 樹立에서부터 韓國戰爭勃發까지

(2) 第2期 ( 1950年 6月 25日 ~ 1953年 7月 27日 ) : 韓國戰爭期

(3) 第3期 ( 1953年 7月 28日 ~ 1960年 4月 18日 ) :

南韓의 第1共和國 崩壞前까지

(4) 第4期 ( 1960年 4月 19日 ~ 1961年 5月 15日 ) :

南韓의 過渡政府樹立과 第2共和國時期

(5) 第5期 ( 1961年 5月 16日 ~ 1970年 11月 ) : 南韓의 軍事政權

樹立과 第3共和國樹立에서 北韓勞動黨 第5次大會까지의  
時期

(6) 第6期 ( 1970年 11月 ~ 現在 ) : 南北對話의 準備 및 對話期

이상과 같이 時期別로 살펴보고, 末尾에서 주로 北韓에 있어서의  
經濟的 發展과 이에 따른 리더십의 變化가 北韓의 統一政策에 미칠  
影響들의 豫測을 시도하기로 한다.

## 第2章 北韓「人共」의 樹立에서 韓國戰爭勃發 以前까지 (1948.9.9~1950.6.24)의 北韓의 對南政策

— 그 性格과 政策決定의 變數를 中心으로 —

### I. 北韓對南政策의 概觀

北韓의 對南政策을 概觀하기에 앞서 우리는 우선 北韓의 「民主基地」論을 念頭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北韓의 「民主基地」論은 北韓 統一政策의 最低目標이면서 동시에 出發基點이기 때문이다.

1945年 12月 17日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 第3次擴大執行委員會」에서 행한 金日成의 「黨路線과 組織에 관한 報告」演說<sup>4)</sup>에서, 金은 우선 北韓에 바로 共產革命基地를 뜻하는 「民主基地」를 창설할 것을 선언하고, 이 「民主基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北韓共產主義者들의 最低守護線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이 「民主基地」가 「祖國統一의 유일한 擔保」라고 規定함으로써 그것이 對南赤化事業의 出發基點임을 명백히 했다. 이 「民主基地」論에 입각하여 北韓은 48年 9月까지 北韓內의 政治的 統一(예컨대, 「北朝鮮民主主義民族統一戰線」의 結成,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과 新民黨의 合黨에 따른 北朝鮮勞動黨의 結成, 다시 北朝鮮勞動黨과 南朝鮮勞動黨의 合黨에 따른 朝鮮勞動黨의 結成 등), 社會主義改革(土地改革의 實施를 包含한 10個 綱領 및 이를 확대한 20個 政綱의 實施), 經濟開發計劃등을 實施해 나갔던 것이다. 이

처럼 南北間의 합의 對決을 대다보고 立憲되었던 「民主基地」建設에서 南韓에 對해 先制의利를 확보하고, 즉 實力培養面에서 南韓을 앞지르고, 北韓은 對兩戰略을 여유있게 전개하려 했던 것이다.

北韓의 統一政策은 48年 9月 10日 소집된 「最高人民會議」 第1次 會議에서 「首相」으로 선출된 金日成이 발표한 「人共」의 政綱과 同 會議가 美·蘇 兩國에게 보낸 「最高人民會議要請書」에 가장 뚜렷이 나타나 있다.

우선 政綱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南北 朝鮮人民의 總意에 의해 수립된 中央政府는 全朝鮮 人民들을 政府周圍에 튼튼히 단결시켜 가지고 통일된 民主主義 自主獨立國家를 급속히 건설하기 위해 全力을 다 할 것이며, 國土의 完整과 民族의 統一을 보장하는 가장 절박한 條件으로 되는 美·蘇 兩軍撤去에 대한 蘇聯政府의 提議를 실천하기 위해 全力을 다 할 것입니다.』

이 政綱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첫째 北韓政權이 韓半島에 있어서 유일한 中央政府라는 點과, 둘째 韓國의 완전한 獨立과 統一을 위해 美·蘇 兩軍은 철수해야 한다는 點이다.

이 點들은 同 會議가 美·蘇 兩國에 보낸 「最高人民會議要請書」에서도 똑같이 강조되고 있다. 同 要請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朝鮮最高人民會議는 유일하고 正當하며 人민적이고 법적인 朝鮮最高立法機關입니다. 그것은 이 最高人民會議가 朝鮮人民의 自由意思表現에 기초하여 창설되었기 때문입니다.

朝鮮最高人民會議는 全朝鮮人民의 要望과 正當한 意思를 대

표하여 蘇·美 兩國政府에 우리 朝鮮에서 兩國 軍隊를 同時에 신속히 철거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sup>6)</sup>

이처럼 北韓은 처음부터 「統一」을 「韓半島の 유일한 中央政府」로 자처한 北韓「人共」의 統治를 南韓에까지 연장함으로써 「國土의 完整」을 이룩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그를 실현하기 위해 美軍의 南韓撤収를 최대의 目標로 설정했다.

美軍의 南韓撤収」의 名分은 「朝鮮人에 의한 朝鮮問題의 自力解決」이었다.

그러나 北韓의 「民族自決原則」은 결국 北韓의 「民主基地」는 그대로 견지하면서 南韓을 유엔과 美國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켜 일방적 武裝解除를 강요한 뒤 「人民解放戰爭」의 이름으로 南韓에 대한 武力侵攻을 감행, 共產統治를 확대하겠다는 「트로이의 木馬」였던 것이다. 따라서 北韓이 「民族自決主義」의 이름 아래 제시한 南北協商은 바로 共產主義者들의 協商方式인 『내것은 協商할 수 없고 네것만을 協商하자』는 일방통행적인 것이었다. 이 점은 北韓의 副首相 겸 外相 朴憲永의 論文(1950年 3月)에서도 뚜렷해진다. 朴은 統一을 위한 2段階 鬭爭을 내세우면서, 1段階로 北韓에서의 「民主基地」建設과 그 鞏固化를, 2段階로 南韓에서의 大衆에 대한 政治工作과 武力鬭爭을 각각 規定하고 있다.<sup>7)</sup>

사실 北韓은 이 時期에 武力南侵을 위한 準備에 박차를 가한다. 金日成은 1949年 3月 모스크바를 방문, 兩國間의 經濟·文化協力 協定을 체결했는데, 이때 蘇聯의 通信들은 北韓이 앞으로 「모든 面에서」 蘇聯의 協調를 받을 것임을 다짐했다. 이러한 다짐은

蘇聯이, 비밀리에—北韓에 대해 武器援助를 개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蘇聯은 北韓에게 1949년부터 1950年 6月 韓國戰爭勃發時까지 偵察機 10台, 야크戰鬥機 100台, 爆擊機 70台, T-34 型탱크 및 T-70 型탱크 100台와 重砲를 지원했다. 이러한 支援을 받은 北韓은 1950年 6월에 地上軍이 13만 5천명을 넘었으며, 南韓과의 接境地帶에는 精銳部隊를 배치하고 있었다. 8)

이것은 「1775年(美國獨立戰爭 직전)의 美軍水準」(美軍事專門家의 評)인 南韓의 兵力(正規軍 6萬 5千名, 海岸警備隊 4千名, 警察 4萬 5千名) 및 裝備外 크게 대조적인 것이었다. 9) 『飛行機 탱크, 戰艦과 現代武器로 무장된 人民軍은 어떤 戰鬥任務도 效果的으로 完遂할 수 있고 … 祖國의 統一과 獨立의 敵을 분쇄하기 위해 언제나 전투할 態勢가 되어 있다』는 國防相 崔庸健의 豪言(1950年 1月 26日)은 바로 이러한 事情을 반영한 것이었다. 10)

北韓은 이처럼 戰爭體制를 굳히는 한편, 南韓에 잔류해 있는 共產主義者들을 선동, 「武裝鬪爭」을 전개시켜 大韓民國을 崩壞시키려고 하였다. 濟州島, 麗水, 順天, 大邱等地에서의 判亂이 바로 그것이다. 사실 南韓으로부터의 美軍撤収(1948年 9月 15日 시작, 1949年 6月 29日 완료)와 中共의 大盛制覇 및 韓國을 美國의 防衛線에서 제외시킨 애치슨(Dean Acheson) 美國務長官의 公式宣言(1950年 1月 12日) 및 南韓政界에 있어서의 南韓協商派의 抬頭 등은 北韓 共產指導者들의 南侵意慾을 크게 고무시켰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狀況에서 1949年 6月 南勞黨과 北勞黨은 朝鮮勞動黨으

로 통합하고 南民戰과 北民戰은 이른바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祖統)으로 통합한 뒤, 하나의 統整된 對南戰略下의 平和攻勢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祖統의 行動綱領은 美軍의 撤収 및 유엔韓國委員會의 축출, 統一을 성취하기 위한 全人民의 動員, 南韓에서의 人民委員會의 設立과 合法化를 포함한 社會主義 改革을 위한 鬭爭등을 규정하고 있어,<sup>11)</sup> 그 이후 「祖統」의 여러 가지 「平和」統一方案은 결국 南韓의 共產化를 궁극적 目標로 하고 있었다.

우선 「祖統」은 1949年 7月 3日 이른바 「7·3宣言」을 통해 南韓의 政黨 및 社會團體에 대해 1949年 9月 15日 南北의 「民主的」政黨과 社會團體의 代表委員會 主管아래 南北總選舉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고,<sup>12)</sup> 「祖統」 中央委員會는 1950年 6月 7日 다시 南北統一最高立法機關을 설치하도록 8月 4日과 8日 사이에 總選舉를 실시하여 8月 15日에 最高立法會議을 서울에서 열기 위해 南北政黨社會團體代表會議을 6月 15日과 17日 사이에 海州 또는 開城에서 開催할 것을 제의했다.<sup>13)</sup> 이에 이어 6月 19日 北韓의 最高人民會議은 大韓民國 國會에 대해 統一을 위한 方法으로 南北 國會를 합병, 單一立法 機關으로 聯合할 것을 제의했다.<sup>14)</sup> 이러한 일련의 提議에서 北韓은 南韓政府의 要人들을 新政府에서 제의할 것등, 大韓民國政府의 事實상의 解体를 요구하여 그들의 底意를 드러냈다. 더욱이 이러한 提議들이 南侵을 위장하기 위한 術策이었음은 곧 닥쳐온 北韓의 對南侵略戰爭에서 명백해졌다. 바꿔말하여 共產側의 平和攻勢는 戰爭勃發을 예견하면서 그들이 平和統一을 위해 最善을 다했다는 印象을 주고 韓國戰爭의 責任을



南韓에 전가시키려는 치밀한 事前布石이었던 것이다.

## II. 變數들의 分析

### (1) 北韓內部的 要素

#### A. 常數

理想的 常數 解放의 感激이 祖國의 分斷으로 나타나자, 北韓의 共產主義者들은 그들이 어느 派閥에 속해 있건간에 分斷으로 因해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오랫동안 품어왔던 「朝鮮의 완전한 解放과 革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믿음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바꿔 말하여, 이 時期에는 統一을 絶對視하고 韓半島全體의 共產革命은 「人民解放戰爭」의 形態를 취해서라도 달성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의 「義務感」으로 안고 있던 「南朝鮮解放」思想이 北韓을 戰爭路線으로 물고 가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sup>15)</sup>

#### B. 變數

① 指導層內의 不和 또는 對立 이 時期에 있어서 北韓의 戰爭路線이 北韓指導層內의 不和 또는 權力鬭爭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는 點은 이미 學界의 通說로 되어 있다.

여기서 우선 日本 코리아(코리아)評論社가 출판한 『朝鮮戰爭史』를 중심의 살피기로 한다. <sup>16)</sup> 金日成을 主戰派로 다루고 있는 이 研究는 金日成이 다음과 같은 事件에 고무되어 武力統一을 구상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 蘇聯의 대규모의 武器援助와 金日成의 韓國戰爭構想에 대한

駐北韓 蘇聯大使 스티코프의 적극적인 支持.

둘째, 豊作으로 인한 軍糧의 장기적 備蓄이 가능했던 點.

셋째, 49年 5月 越北한 韓國軍人들을 통해 韓國軍隊内部的 事情을 파악했다고 과신한 點.

네째, 駐韓美軍의 완전 撤収와 南韓을 美國의 極東防衛線에서 제외시킨 애치슨宣言.

다섯째, 南勞党的 실질적 潰滅로 인한 南韓内部에서의 「人民革命」可能性의 弱化.

金日成의 全面南侵海에 대해 朴憲永은 『南朝鮮의 勞動者와 農民 및 兵士의 同盟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레닌式革命이 되어야 한다』는 평소의 信念을 피력하고 『毛沢東路線에 가깝게 「人民軍」에 의한 武力內戰方式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朴憲永은 특히 50年 3月 南勞党에 대한 「指示覚書」에서, 첫째, 北으로부터의 南侵은 極左冒險主義로서 美軍의 干涉을 초래할 危險이 있고 南北의 지역적 抗争의 様相으로 발전할 危險이 있으며, 둘째 南勞党이 「人民」가운데 뿌리박고 있는 한 南으로부터의 「北侵」을 막을 수 있고, 셋째, 南韓의 「進歩勞力」이 總選舉에서 승리하여 南北間의 平和統一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했다고 한다. 그런데 日本專門家들은 이 著書를 집필한 筆陣이 朴憲永과의 親分關係로 그를 지나치게 호의적으로 묘사한 흠이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金應沢教授는 朴憲永을 主戰派로 보고있다. 17) 南勞党을 조직, 격렬한 左翼鬭爭을 전개하다가 48年初 越北한 朴을 초조하게 만든것은 南韓에 있어서 南勞党系의 暴力鬭爭이 점차 潰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北韓에 있어서 自身과 南勞黨系의 影響力이 서서히 가늘고 있다는 點이었다. 49年 6月 平壤에서 창설된 對南戰略의 本部格인 「祖統」은 朴에게 새로운 期待를 준 것 같다.

朴은 그의 論文에서 「祖統」이 세워지기 전에 있어서 兩韓의 빨치산運動은 警察署나 官吏에 대한 소규모 攻擊 뿐이었으나 「祖統」이 세워진 뒤에는 빨치산運動이 점차 잘 조직되어 가고 있으며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18)

그러나 사실 49年 9月 이후 兩韓의 게릴라運動은 계속 몰락, 당시 兩韓當局의 推計는 約 5千5百萬名 정도로 보고 있었다. 特別 國軍 2個 師團이 게릴라討伐에 배치된 49年 가을과 겨울을 고비로 게릴라運動은 거의 부리가 났혀 50年 4月에는 600名 以下로 떨어졌다. 50年 6月 22日 「프라우다」도 兩韓에 있어서 게릴라運動의 失敗를 지적하고 있다. 19)

이와 관련하여 北韓政權이 「祖統」의 活動에 不滿을 가졌다는 證憑가 나타났다. 「祖統」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7·3 宣言」을 통해 兩韓에서 모든 「帝國主義者」들을 축출할 것과 統一議會와 統一政府를 수립하기 위해 南·北韓 總選을 실시토록 鬭爭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祖統」의 이러한 要求는 곧 사라졌고 『北韓을 兩韓의 「北侵」에서 보호하자』는 運動으로 路線을 전환했다. 이와 더불어 50年 6月 19日에는 兩韓에 대해 으레 統一方案을 제의하던 「祖統」을 제치고 北韓의 「最高人民會議」가 大韓民國 國會에 대해 統一方案을 제의했다.

이러한 狀況에서 朴憲永이 택할 수 있는 길의 하나가 武力兩侵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번 戰端을 열어 밀고 내려가면 朴

이 명소에 장담하던 地下의 南勞黨員들이 일제히 붕괴, 손쉽게 南韓을 점거할 것이며 이에 따라 自身の 權力基盤을 굳혀 金日成에게도 도전할 수 있다고 계산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시몬즈(Robert R. Simmons)教授는 金·차이 모두 主戰派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金·차이 모두 당시 北韓 共產指導層 사이에 만연된 「南朝鮮解放」의 主役이 되기 위해 「民族主義者 競争」을 벌였고 따라서 「競争的 主戰論」을 전개했다는 것이다.<sup>20)</sup>

② 經濟的 成就度 이 時期에 北韓은 2個의 1個年經濟計劃(1947年, 1948年)과 1個의 2個年經濟計劃(1949-50年)을 수립, 추진해 나갔다.<sup>21)</sup>

우선 1947年度 經濟計劃과 1948年度 經濟計劃을 分析해 보자. 이 2個의 經濟計劃은 「自給自足經濟」(또는 北韓의 공식적 表現을 발리면, 「平和的 建設」의 經濟)를 수립하는데 主目的이 있었다. 이 經濟計劃의 成果에 대한 南·北韓의 評價는 다음과 같다.

<北韓의 評價>

1946年 = 100

	1947年	1948年
工業	202.5	341
農業	200.4	311.3
輸送	238	378
商業	.....	.....
勞動生產性	.....	.....

出處: 朝鮮通史, III, pp. 79-84

〈 南 韓 의 評 価 〉

1946年 = 100

	1974 年	1948 年
工 業	.....	337
農 業	.....	151
輸 送	.....	507
商 業	.....	.....
勞 働 生 産 性	.....	375

出 處 : 金 昌 順 , 北 韓 十 五 年 史 ( 書 京 : 知 文 閣 , 1961 ), pp.254-55

위의 2 個의 表에서 살핀 바와 같이 비록 南·北韓사이의 評價에 있어서 差異가 있었다 하더라도, 北韓의 經濟가 1947 年과 1948 年의 經濟計劃을 통해 비약적인 發展을 이룩한 事實에 대해서는 疑心의 余地가 없다 하겠다.

이 2 個의 1 個年經濟計劃의 成功의 基礎위에서 北韓은 2 個年經濟計劃 ( 1949-50 年 ) 을 추진했다. 金日成에 의하면, 이 經濟計劃은 다음 세가지 目的을 갖고 있었다. 22) 첫째, 工業生産을 戰前의 水準으로 회복시킨다. 둘째, 日帝植民統治의 遺産인 經濟構造上的 不均衡을 조성, 自給自足經濟로 變化시킨다. 셋째, 統一을 성취한 뒤 「南韓의 황폐된 經濟」를 再建할 完전한 準備을 갖추는다.

이 經濟計劃의 成果에 대한 資料는 現在 발견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1947 年, 1948 年의 經濟計劃의 進捗度로 보아 이 2 個年

經濟計劃에도 상당한 進歩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軍事的 成就度

앞(I)에서 이미 지적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함.

## (2) 南韓內部的 要素

### 變 數

#### ① 政治的 安定度

이 時期에 있어서 南韓의 政治的 安定度는 지극히 낮은 形便이었다. 韓民黨의 支援을 받아 執權에 성공한 李承晩大統領은 執權과 同時에 韓民黨을 멀리하기 시작했으며, 이로써 李承晩대 韓民黨의 權力鬭爭이 시작되었다. 韓民黨은 1949年 2月 國民黨과 제휴, 民主國民黨(民國黨)을 창당, 反李承晩勢力의 先鋒이 되었고 院內의 中道派들도 차차 反李라인에 參與하게 되었다.

民國黨과 中道派一部는 1950年 1月 드디어 大統領責任制를 議員內閣制로 변경시킬 것을 要求하는 改憲案을 제의, 3月10日 國會에 공식으로 제출했다. 政府樹立 1年 5個月만에 提議된 이 改憲案은 贊 79, 反 33, 棄權 66으로 否決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國內政治의 特히 李承晩政府의 不安定度를 말해주는 하나의 指標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證拠로 李承晩이 1950年 5月로 豫定된 國會議員 總選舉를 연기하려고 시도한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3)

이와 同時에 國會의 中道的 政治人과 政黨을 중심으로 外軍撤収의 要求가 높아졌고 이것은 李承晩政權에게 「심한 政治的 壓力」 24)

으로 나타났다. 그 한 例로 1949年 2月初 国会內의 少壯派 議員 70余名이 南北平和統一을 실천할 수 있도록 韓國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外國軍隊의 即時 撤退를 요구하는 決議案을 그 당시 韓國에 들어온 新 UN 韓國委員團에 제출하자는 緊急動議를 지적할 수 있다. 25) 이에 李承晩은 그 자신이 직접 國會에 출석하여 非 公開裡에 그 「不當性」을 역설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의 政敵인 中道主義者들과 共產主義者들은 美軍駐屯과 韓國의 主權性 및 獨立性을 문제삼고 南北協商을 제의, 날이 갈수록 李承晩에게 「심한 政治的 壓力」를 가했던 것이다.

특히 1950年 5月 30日에 실시된 總選舉에서 李承晩系는 全體議席 210席中 57席밖에 차지하지 못했으며 그 가운데 李에 대한 支持를 공식으로 表明한 議員은 12名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대체로 反李의이며 또는 南北協商論에 동조적인 無所屬系가 127名이나 당선되었다. 이것은 李의 權力基盤의 취약성과 政治安定度가 낮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26)

## ② 經濟的 成就度

北韓이 세차례의 經濟計劃을 통해 상당한 經濟發展을 이룩했음은 앞에서 지적한 바이다. 이에 비해 南韓經濟는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거의 전적으로 美國의 對韓經濟援助에 依存하고 있었다. 이 당시 經濟狀況에 대해 애치슨國務長官은 그의 對韓政府 覺醒을 통해 『韓國에 있어서 財政的 狀況은 이미 危險水位에 도달했다는 것이 美國政府의 判斷이며, 現在 進行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가까운 將來에 억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美國이 韓國

政府에게 공여하는 經濟援助를 효과적으로 活用할 수 있는 韓國政府의 能力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이라는 것이 美國政府의 判斷이다』라고 評價하고 있다. 27)

### ③ 軍事的 成就度

앞(I)에서 이미 지적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함.

### (3) 國際環境의 要素

第2次大戰 이후 大戰中の 美·蘇 協力體制가 와해되고 점차로 美·蘇가 중심이 되는 支配的 國際體制인 美·蘇 兩極化體制가 國際적으로 성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韓國과 같은 國際政治의 周辺地域에도 일종의 從屬的 體制로서 南北對決의 兩極化의 小國系體制가 성립되었다. 體制決定論의 立場에서 보면 이러한 國際政治體制가 維持되려면 그 體制의 行爲者들(actors)은 그 體制의 基本 行動律에 따라 적절한 役割과 機能을 해야 한다고 한다. 28)

그런데 美·蘇는 각각 行動律을 지키지 않았다. 우선 美國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駐韓美軍을 完全 撤収시켰을 뿐만 아니라 애치슨宣言을 통해 南韓이 美國의 防衛線에서 제외되었음을 명백히 하여 從屬體制의 現狀을 維持시켜야 할 意思와 能力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만일 美國이 新규모의 兵力이라도 駐屯시키고 南韓保護의 확실한 宣言을 했거나 南韓을 援助하여 南北韓의 勢力均衡을 위해 주었다라면 北韓의 兩侵可能性은 크게 줄었을 것이라는 推理가 可能할 수 있다.)

한편 蘇聯은 실제로 北韓의 武力統一案에 동조 支援하여 韓半島에 있어서의 從屬體制는 깨어지게 되었다.



### 第3章 韓國戰爭期(1950.6.25~1953.7.27)에 있어서 北韓의 對南政策

#### — 그 性格과 政策決定의 變數를 中心으로 —

本章에서는 北韓이 무슨 要因으로 戰爭路線에서 休戰路線으로 對南政策의 變更을 가져왔는지를 北韓國內政治要素를 中心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50年 6月 25日 새벽 北韓은 드디어 치밀하게 준비해온 南侵을 개시했다. 北韓은 南進은 신속하여 6月 28日 서울을 점령했다. 이와 同時에 北韓의 放送들은 『勝利는 눈앞에 있다. 도처에서 暴動을 일으키라』는 朴憲永의 呼訴를 되풀이 했다.

유엔軍의 介入을 확실히 北韓 共產主義者들을 당황케 했다. 7月 5日 『勝利는 제 칼로 걸어오지 않는다』는 平壤放送을 梁機로 北韓의 新聞과 放送은 차차 焦燥의 빛을 머기 시작했다.

『敵은 아직 潰滅되지 않고 있다. ... 勝利는 가열한 鬪爭없이 獲得할 수 없다』는 7月 16日字 「노동신문」의 社說이 그 대표적인 例이다.

7月 20日 北韓은 美軍과의 최초의 重要 接戰에 승리, 大田을 탈취했다. 그러나 유엔軍의 制空權 掌握과 美海軍의 맹렬한 포격은 北韓으로 하여금 戰局에 대한 樂觀을 不許하게 했다. 金日成은 7月 27日 프랑스 「우마나데」紙와의 會見에서 『戰爭은 長期化될 것이다. 우리가 自慢하면 敵은 우리의 아직까지의 勝利를

零化할 것이다』라고 조심스런 態度를 보였다.

8月初 馬山戰鬪에서의 유엔軍의 勝利와 大邱 死守를 契機로 戰局은 유엔軍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기 시작했고, 9月 15日 맥아더 將軍의 仁川上陸作戰은 戰勢를 역전시켰다. 10月 1日 國軍은 38도선을 넘어 北進하기 시작했고, 10月 7日 유엔 總회의 決議에 따라 유엔軍의 北進에 뒤따랐다. 10月 26日 이들은 드디어 韓·滿의 國境에 이르렀다. 이즈음 中共軍의 介入은 『완전히 새로운 戰爭』(맥아더의 表現)을 형성했다. 北韓의 態度도 굳어졌다.

金日成은 江界에서 12月 4日 勞動黨 中央委員會 第3次 會議를 열고 戰局을 分析했다. 그는 開戰 直接 兩韓의 大部分을 점령했던 第1期와 『外國의 干涉에 의해 後退를 강요 당했던』 第2期를 各各 비판한 다음, 『우리는 이제 敵에 대한 最後의 勝利를 위해 맹렬한 鬪爭을 수행중인 第3期에 있다』고 주장하고 이 時期에 『朝鮮에서 완전히 美帝를 축출하여 民族統一을 성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sup>29)</sup> 이 때 金은 金의 權威에 도전해 온 延安派의 巨額 武亭을 失戰의 責任을 지워 숙청했다.

金의 이 發言은 그가 休戰에 전혀 関心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사실 12月 初부터 유엔에서는 13個 아시아·아랍國家들 사이에 休戰案이 공개적으로 검토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休戰의 成立을 위해 北韓과 中共이 38度線에서 進軍을 정지할 것을 要請했다. 바꿔 말하여 「戰爭 이전의 現狀回復」이라는 線에서 休戰을 成立시키자는 構想이었다.

그러나 北韓의 新聞과 放送은 이러한 構想과 要請을 완전히 묵살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원수들을 朝鮮에서 몰아낼 때까지 우리의 進擊을 정지하지 않을것』임을 호언, 30) 休戰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백히 했다.

共產軍은 50年 12月 26日 다시 38度線을 넘어 51年 1月 4日 서울을 점령하고 南進을 계속했다. 이러한 狀況아래 유엔은 51年 2月 1日 韓國에서 休戰을 모색하자는 決議案을 채택했다. 北韓은 『休戰의 目的이 侵略軍을 재편성, 戰爭을 계속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반박했다. 51年 3月 유엔軍의 反擊으로 共產軍이 38度線 近郊로 퇴각하자 유엔에서는 다시 休戰의 무드를 고조되었다. 蘇聯도 休戰을 성립시키기 위해 양보할 뜻을 있음을 시사했다. 『韓國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위한 모든 關係國會議의 즉각적 召集』을 요구한 蘇聯 主導下의 世界平和會議의 決議文이 바로 그것이다. 31)

이즈음(51年 3月 12日) 北韓의 「祖統」은 中央委員會를 召集, 「現在의 狀況과 民主政黨 및 社會團體에 부과된 課業」을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朴憲永은 休戰에 반대하는 뜻을 명백히 했다. 朴은 우선 『戰爭의 長期化는 全體人民에 대한 무한한 苦痛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戰爭을 繼續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戰爭은 中道에서 포기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戰爭은 우리 民族에 대한 死活을 결정하는 戰爭이다』라고 規定하고 『모든 人民을 총동원할 것』을 호소했다. 「祖統」의 決議文은 朴의 強硬路線을 그대로 반영했다.

그것은 韓國戰爭을 「民族解放戰爭」으로 규정하고 「美帝」를 완전히 축출할 때까지 鬪爭을 계속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32)

51年 4月 前線이 교착되면서 中共도 休戰案을 받아 들이겠다는 示唆을 보냈다. 中共의 新聞과 放送은 『유엔이 韓國戰爭의 平和的 解決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랫동안 國民黨과의 內亂에 시달렸고 建國 1年만에 美國을 相對로 한 韓國戰爭에 휘어든 中共으로서 休戰은 바람직한 것이었다.

그러나 北韓의 新聞과 放送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休戰案에 관한 國際社會에서의 討議들에 대해 沈黙을 지켰다. 이로 미루어 이 時期에 休戰會談을 수락하라는 中·蘇의 壓力이 北韓 指導層에 가중된 것 같다.

이러한 背景속에 51年 6月 23日 蘇聯의 유엔代表 말리크의 休戰提議가 나왔다. 中共의 支持는 즉각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北韓은 사흘뒤에야 아무런 論評없이 말리크의 提議를 간단히 보도했다. 나흘째인 6月 27日 平壤放送은 『朝鮮人民은 巴야흐로 朝鮮의 歷史上 가장 심각한 試鍊에 직면하고 있다. 朝鮮人民軍은 中國義勇軍과 협력하여 敵을 38度線 以南으로 축출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라고 강조, 『敵을 兩海까지 밀고 나간다』는 종래의 主張을 『38度線 以南으로 축출한다』고 수정했다. 33) 이것은 北韓이 결국 「戰爭 以前의 現狀의 回復」이라는 線에서 休戰을 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7月 1日 金日成은 休戰會談의 開催에 동의한다는 公式聲明을 발표했다. 51年 7月 8日부터 시작된 休戰會談은 2年을 끌어 결국 53年 7月 27日

겨우 休戰協定이 締結된다 .

休戰會談의 開幕에 즈음하여 北韓指導層은 現實派와 強硬派로 크게 양분되었다 . 金日成과 崔瀾健을 중심한 現實派는 그들이 유엔軍의 막강한 火力앞에 中·蘇의 支援없이 戰爭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무모한 戰爭으로 철저히 破壞된 北韓經濟의 復旧없이 또한 北韓住民사이에 만연된 厭戰意識을 무시한 채 統戰한다면 스스로의 墓를 판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

이들 現實派에 비해 朴憲永등 兩勞黨系의 強硬派는 전혀 休戰을 받아 들일 수 없는 立場이었다 . 그들의 勢力基盤은 어디까지나 兩韓이며 統戰만이 그들의 殘命을 연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물론 一部 論者들이 지적한 것처럼 朴의 內心엔 金日成으로 하여금 人氣없는 統戰을 강행케 하여 北韓住民의 厭戰意識을 더욱 고조 . 확대시키고 이를 基盤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金日成을 타도한다는 計算이 숨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 그러나 『수십만 兩勞黨員의 일제 蜂起』를 호언하며 戰爭을 도발하는데 一役을 담당한 朴으로서 우선 敗戰과 다른없는 休戰의 受諾은 그대로 政治的 自殺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

이러한 立場의 差異는 곧 兩派의 暗鬭로 전개된다 . 다음에 그 展開樣相을 살펴보기로 한다 .

金의 朴에 대한 합축적인 攻擊은 51年 8月 14日 解放 6周年紀念의 平壤市民大會에서의 金의 報告속에 나타났다 . 金은 우선 『壁에 부딪린 美帝가 休戰提議 밖에는 代案이 없어 다시는 侵略을 앞장다고 休戰을 提議했다』고 스스로의 立場을 정당화하고 『平和

를 사랑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提案을 수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고 묻고 있다. 34) 金の 길지 않은 報告속에 세번이나 나타나는 이 물음은 사실상 朴登 統戰派에게 겨냥된 것이었다. 金은 이 報告에서 『우리의 破壞된 產業과 國民經濟를 재건 發展시키기 위해 平和가 「必要」하다』고 주장했다.

朴이 金の 主張에 승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곧 확실해졌다. 金の 報告가 있는 한달뒤 北韓을 訪問中인 趙盟代表團에게 朴은 『朝鮮人民은 美帝侵略자들이 우리 땅에서 완전히 전멸되고 축출될 때까지 영웅적 鬪爭을 계속할것』임을 강조했다. 35) 이러한 강경한 文句는 金の 演說속에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

朴憲永의 態度가 가장 鮮明히 나타난것것은 그가 52年 1月 25日, 全國 農民熱誠者大會에서 행한 演說에서이다. 그는 우선 『만일 우리 가운데 美帝 侵略者의 奴隸로서라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는 옳지 않다』고 주장, 金日成 등 現實派를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어느 나라의 人民도 그들의 主權과 獨立을 위해서 流血 戰爭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侵略者에 대항하여 체계적인 抵抗鬪爭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奴隸로서 侵略者에 복무하는 길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勝利를 獲得하기 위해 어떠한 犧牲을 주저해서도 안되고...지금 부터라도 長期 戰을 計劃하지 않으면 안된다.』 36)

朴에 대한 反駁은 金日成의 「가장 충실한 同志」 崔鏞健의 52年 2月 8日 「人民軍 創設 第4周年 紀念辭」에 나타났다. 여기서 崔는 金の 指導路線이 『항상 옳았다』고 누누이 강조,

金의 休戰路線을 옹호하고 『蘇聯은 韓國戰爭의 平和的 解決을 강력히 주장해 오고 있다』<sup>37)</sup>고 덧붙여 自派의 休戰路線의 蘇聯의 壓力에 의한 것임을 비추는 동시에, 蘇聯의 이름으로, 統戰派를 제압하려 하였다. 이러한 暗闘속에 金日成의 최초의 公式傳記가 발표되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52年 4月 10日字 「노동신문」은 金의 生日 40週年에 즈음하여 그의 傳記를 게재한다고 하였으나 아마 이것은 金을 영웅화하여 敗戰에 대한 不滿에 따른 자신의 政治的 危機를 모면하려는 象徵 操作的 計算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 傳記는 무엇보다 抗日運動과 韓國共產主義運動의 조작된 모든 榮譽를 金에게 돌리면서 金의 先輩裕仁, 朴憲永과 차이 한 몫을 차지했던 國內 共產主義運動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sup>38)</sup>

이에 이어 5月 1日 金日成의 論文이 發表되었다. 여기에서 金은 『朝鮮人民은 오직 레닌主義와 스탈린主義에 기초한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에 의해서만 祖國과 人民을 수호할 수 있다』고 주장, 결국 蘇聯이 주장하고 있는 休戰을 따를것을 강조했다.<sup>39)</sup>

5月 3日의 「民主朝鮮」은 社說에서 『우리는 蘇聯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한다』고 주장, 金을 뒷받침했다.

朴憲永의 反論은 52年 11月 그의 「蘇聯 10月革命 35周年 紀念 平壤市民大會의 報告」에 잘 나타나 있다. 朴은, 金日成 傳記와는 전혀 달리, 抗日 獨立運動에 있어서 그가 一役을 담당했던 朝鮮共產黨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 반면, 金日成의 이름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朴은 『經濟復舊를 위해 平和가 必

『要하다』는 金·崔의 主張과는 달리 統戰을 강조하면서 『長期的이고 가열한 鬭爭을 견디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충분히 무장시키자』고 호소했다. 40)

그러나 이 演說은 차오로서는 마지막 것이었다. 한달뒤에 열린 勞動黨 中央委 第5次 總會에서 金日成은 「우리의 勝利의 基礎인 黨의 조직적 思想上 強化에 대하여」라는 報告에서, 朴憲永과 李承燁 「徒黨」이 黨의 統一과 団合을 破壞했다고 규탄하고 『이들 宗派쟁이들이 우리 黨에서 한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破門을 선언했다. 41)

이와 더불어 朴·李와 李康國을 비롯한 兩勞黨系에 대한 대대적 檢拳가 뒤따랐다. 이들은 결국 休戰의 成立과 더불어 裁判에 회부, 대부분 処刑되거나 重刑을 선고 받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北韓이 戰爭路線上에서 休戰路線上으로 方向轉換을 하게된 變故들로 다음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유엔軍의 신속한 反擊과 특히 유엔軍의 막강한 火力.

둘째, 北韓經濟의 전면적 破壞 鎔業은 生産力의 80%를 喪失했으며 工業生産은 1949年水準의 40%로 下落했고, 農業産出은 12% 줄었다. 金屬, 化工, 電氣, 漁業分野에 있어서 生産의 下落은 60%에서 93%에 이르렀으며, 銑鉄, 銅, 알루미늄, 알칼리, 化學肥料生産分野에 있어서 破壞는 거의 철저했다. 農土의 9,06,500 에이카가 損失됐고, 家屋 60千棟, 校舍 5千棟, 病院 1千棟이 破壞됐다. 42)

셋째, 北韓의 戰爭遂行能力의 源泉인 中·蘇가 休戰을 支持하고 나온 點.



네째, 金日成派와 朴憲永派의 權力鬭爭 統戰路線을 振하는 境遇, 民衆사이 에 厭戰意識이 蔓延되고 反戰的 쿠미타가 發生할 우려가 있었다.

다섯째, 休戰을 요구하는 國際社會에서의 壓力

## 第4章 休戰에서 4.19革命까지 (1953.7.27~1960.4.19)에 있어서 北韓의 對南政策

— 그 性格과 政策決定의 變數를 中心으로 —

### I. 北韓對南政策의 基本性格

이 時期에 있어서 北韓의 對南政策의 基本性格은 韓國戰爭으로 철저히 破壞된 北韓의 經濟를 復旧하고, 金日成의 리더십을 확립하는데 主眼點을 둔 「自己防禦的」인 것이며, 이것이 「平和統一」論으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 II. 北韓對南政策의 概觀

이 時期에 있어서 北韓의 對南政策을 이해하기 위해 韓國休戰協定締結 그다음 날인 1953年 7月 28日에 金日成이 北韓住民에게 行한 라디오演說을 살필 必要가 있다. 이 演說에서 金은 「黨과 政府 및 人民의 示諭한 5大 當面目標」로 다음을 지적하고 있다.<sup>43)</sup>

첫째, 『戰爭으로 破壞된 人民經濟의 신속한 回復과 發展이라는 政治·經濟의 課業』

둘째, 『祖國의 國防力 強化』

셋째, 『人民의 物質文化와 生活水準의 向上.』

네째, 『人民民主主義制度의 發展과 強化』

다섯째, 『祖國과 人民의 모든 힘을 總動員함에 의해 祖國의 平

的 統一이라는 歴史的 課業의 達成』

이 演說에서 보여지듯, 金日成은 統一問題에 대한 力點을 最下位에 두고 있으며, 經濟復旧과 「物質文化」의 向上 및 生活水準의 向上 등 經濟安定에 상당히 큰 比重을 두고 있다. 金의 이러한 政策上의 力點의 變更은, 1953年 8月 5日 조직된 勞動黨 中央委員會 第6次 總會에서 行한 金의 演說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모든 것을 人民經濟의 戰後回復과 發展에 關하여」라는 이 演說에서 金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黨中央委 6次總會의 基本課業은 戰爭으로 破壞된 人民經濟를 復旧하고 發展시키고, 그럼으로써 우리 祖國의 革命源泉인 民主基地를 安定시키고 강화함에 있다. 또 그 基本課業은 祖國의 平和統一을 견고한 물질적, 경제적 基礎를 건설하기 위한 鬭爭으로 黨과 人民을 결기시킴에 있다. (44)

이처럼 經濟復旧에 力點을 두고 金은 黨中央委 6次總會에서 다음과 같은 3個의 經濟計劃을 통과시켰다.

첫째, 「총체적 準備과 調整을 위한」 6個月經濟計劃(1953年 7月~12月).

둘째, 「모든 經濟分野에 있어서 戰前의 水準을 회복하기 위해 人民經濟의 復旧과 發展을 위한」 3個年經濟計劃(1954~56年).

셋째, 「우리 祖國을 부유하고 강력하며 民主적이고 自主的 國家로 만들기 위해 전반적 産業發展을 目標로 한」 5個年經濟計劃(1957~61年).

그러나 이러한 經濟計劃이 北韓의 國內資本만으로는 不可能한 것이었다. 따라서 金日成은 1953年 9月과 11月 畝各 모스크바와

北京을 訪問하고, 兩國과 各各 經濟援助協定을 체결했다. 蘇聯은 約 2億5千萬弗의 支援(2年間)을 약속하고 蘇聯에 대한 北韓의 負債를 절반으로 줄여주었다. 45) 中共도 約 3億5千4百萬弗 相當의 物品을 4年에 걸쳐 公여할 것을 약속하고 中共이 韓戰에 參戰함으로써 發生한 모든 經費를 北韓에의 贈賜(gift)로 간주한다고 宣言했다. 46) 東歐와 蒙古人民共和國에서도 北韓에 經濟支援을 제공했다.

이처럼 「統一을 위한 國內의 經濟建設」을 강조하면서, 金은 또 한 政敵打倒에 着手, 政治的 鞏固化를 꾀하려 했다. 政敵打倒의 第一号는 前章에서 지적한 南勞系였다. 1953年 8月 7日 党中央委에서 金日成의 演說이 있는지 이를위인 8月 9日 北韓政權은 南勞系 12名을 「共和國 政府를 打倒하려는 陰謀와 反國家間諜活動陰謀」를 理由로 拘束했다고 發表했다. 47)

1954年 1月 3個年經濟計劃이 시작되었다. 이 計劃은 輕工業과 農業에 대해서 보다 重工業에 最優先順位를 두었다. 48)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蘇聯과 中共 및 東歐로부터의 대규모 經濟援助에 基因하여, 3個年計劃은 「상당한 經濟的 躍進」을 이룩한 것으로 北韓當局은 주장했다. 北韓當局에 의하면, 전체 工業產出은 1953年에 비해 2.8倍로 뛰었으며, 灌溉事業과 機械化 및 集團化로 인해 農業產出도 크게 뛰었고, 3個年計劃은 2年 8個月만에 그 目標을 達成할 수 있었다. 49)

3個年計劃이 基礎産業을 재건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成功을 거뒀다 해도, 住民의 生活水準이 크게 개선된 것은 아니었다. 特

히 消費財는 극도로 부족했으며, 빈약한 「알곡生産」은 住民生活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56年 4月 労働党 第3次會議에서 金日成은 重工業의 發展을 더욱 촉구함으로써 『自主的이며 自給自足的 經濟를 수립하기 위한 基礎를 닦기 위해』 5個年經濟計劃 (1957~61年)을 제시했다.

여기서 反對勢力들은 人民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輕工業과 農業에 더 力點을 둘것을 提議했다. 反對派의 勢力이 강력하여 1956年 12月에서야 비로소 5個年計劃에 대한 公式投票가 실시될 수 있었다고 한다. 50)

前記한 第3次會議가 끝난 직후, 金日成은 5個年計劃에 대한 더 많은 支援을 獲得하기 위해, 蘇聯과 東歐를 巡訪했다. 그러나 金의 旅行동안, 崔昌益과 朴昌玉을 中心으로, 反金勢力이 결집되었다.

따라서 金日成이 귀국했을때, 이 反金勢力은 1956年 8月 30日 소집된 労働党 中央委員會에서 金의 「獨裁主義的 指導」와 「重工業에 대한 過度한 強調」를 이유로 金을 공개적으로 攻擊했다. 反金勢力은 特히 1956年 2月 第20次 蘇聯共產黨大會에서 行한 후르시초프의 스탈린格下運動에 고무되어, 黨에 있어서 集團指導制의 形成을 要求했다. 51)

그러나 金日成派는 中央委의 多數派를 占據하고 있었고 反對派를 「反黨. 反動分子」로 규정 숙청할 수 있었다. 이 肅清을 梁機로 金日成과 그의 그룹은 黨內整風運動을 수행. 1957年 8月에는 反對派를 거의 뿌리 뽑을 수 있었다. 이 整風運動은 黨의 高位 階級뿐만 아니라 下級에까지 미쳤으며, 金에 충성하는 者를 제외한

거의 모든 黨員들이 肅清되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北韓에 있어서의 內的 狀況은 金日成이 統一보다 經濟復旧와 党内權力鬭爭에 더 没頭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는 특히 「北半部の 強化, 또는 「民主基地」(北韓)의 強化없이 統一을 생각할 수 없다는 傾向을 뚜렷이 나타냈다. 이 點에 關해 金은 1956年 4月 30日 第3次党大会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祖國의 統一은 우리 共和國 北半部に 人民民主主義制度를 公同化함에 의해서만, 즉 祖國의 平和統一의 堅固한 擔保인 社會主義建設을 成功的으로 遂行함에 의해서만, 그리고 生産을 증가시키고 人民의 物質, 文化 生活水準을 더욱 개선시키며, 民主基地를 政治的으로 經濟的으로 鞏固化함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sup>53)</sup>

反金勢力을 제거하고 自身の 權力을 鞏固化한 뒤 金日成의 主要 關心은 다시 經濟發展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5個年經濟計劃(1957~61年)이 전체 工業產品을 平均 350% 增加시킨다는 야심적 目標 아래 제시되었다. 이 目標을 達成하기 위해, 金日成은 1958年 「千里馬運動」과 「청산리運動」을 시작했다. 住民들은 하루에 14시간 이상 일하도록 要求되었고 모든 可用人力과 資源이 動員되었다. 이에 따라 5個年計劃期間에 工業產品의 全体價值는 3배 이상 增加되었고, 日常品目은 1957년에 비해 2.5배 增加되었다. 北韓當局은 5個年計劃이 2年半만에 성취되었으며, 따라서 殘余期間은 1961년에 시작될 또 하나의 5個年計劃 - 이것이 7個年計劃(1961-67年)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 의 準備를 위한 「過

渡期」로 지정되었다고主張했다.

이처럼 5個年計劃의 目標을 맹렬히 추구한 結果,北韓은 經濟產  
出에 있어서 1961年 現在 南韓에 비해 천지한 成功을 이룩했다.  
다음의 表는 1961年 現在 南北韓經濟產出의 對比를 보여준다.

	南 韓	北 韓	南北對比
石 炭 (tons)	5,888,000	11,788,000	1 : 2
電 氣 (kwh)	1,770,000,000	10,418,000,000	1 : 5.7
鐵 (tons)	46,000	776,000	1 : 16
肥 料 (tons)	64,000	662,000	1 : 10
트랙터	0	3,996	-
綿 織 (meters)	133,000,000	256,000,000	1 : 1.7
쌀 . 밀 (tons)	4,534,000	4,830,000	1 : 1
漁 業 (tons)	434,000	620,000	1 : 1.4
시멘트 (tons)	522,000	2,253,000	1 : 4.3

出處 : Soon Sung cho "The Politics of North Korea's

Unification Policies," World Politics, xlv, 2 (Januarys,  
1967) p.230

같은 期間에, 金日成은 農民의 集團化도 완료했다. 1953年 8月  
과 1954年 10月사이의 「實驗段階」를 겪은뒤,北韓政權은  
1954年 11月 본격적인 集團化運動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1955年 1年 동안 農民의 49%가 集團化되었고, 1956年에 나머지 農民中 30%가 集團化되었으며, 1958年 8月에는 農民全體의 集團化가 완료되었다. 55)

결론컨데, 金日成政權은 國內의 政治的 安定, 經濟建設등의 課業에 政策의 優先順位를 두었고, 이를 위해 「統一」을 뒤로 미루었다. 따라서 자연히 「平和統一」의 政策 또는 戰略을 採択했던 것이다. 南韓의 國內의 要素는 北韓의 對南政策에 어떤 影響을 미쳤을까? 이 時期에 南韓은, 經濟建設보다 「統一」에 더 力點을 두었고 「北進統一」 또는 「武力統一」을 공공연히 主張했다. 이 「武力統一」論에 대해 北韓은 어떻게 評價하였을까?

이 물음에 대한 解答을 얻기란 쉽지않다. 그러나 金은 1953年 10月 1日 조인된 韓·美 相互防衛條約이 南韓의 「일방적 北進」을 억제하는 効果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戰爭이 다시 일어날 것이 라거나 또는 休戰協定은 완전한 平和協定이 아니기 때문에 平和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느니 하고 믿는 어떤 동무들이 있다』고 비탄했던 것이다. 56) 따라서 北韓政權은 韓國休戰協定과 韓·美相互防衛條約이 기본적으로 南北間의 軍事的 衝突을 방지해 주는 重要的 制度的 裝置라고 확신하고, 그를 이용하여 國內安定政策을 취했다고 解答할 수 있다.

金日成이 對南冒險主義를 회피하고 오히려 國內安定을 우선시했다는 것은 이 時期에 이미 本軌道에 들어선 中·蘇紛爭에 있어서 北韓이 취한 態度에서도 짐작된다. 이 時期에 北韓은 社會主義陣營의 結束을 강력히 希望했다. 그 까닭은 「蘇聯에 의해 영도되



는 社會主義 友好國家들」의 結束이 깨어지는 境遇, 北韓의 經濟計劃의 成功에 기본적인 「兄弟國들의 援助」가 보장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57)

그러나 1958年 中共의 「台灣解放」運動에 대해 (또는 「台灣海峡危機」에 대해) 蘇聯이 냉담한 態度를 취한 것은, 北韓의 指導層으로 하여금, 北韓이 비록 對南冒險主義를 執한다 해도, 西方과의 德탕트 및 平和共存을 표방하고 있는 후루시초프의 支援을 전혀 얻지 못할 것이라는 確信을 갖게 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8)

## 第5章 第2共和國時代に 있어서 北韓의 對南政策

— 그 性格과 政策形成의 變遷을 中心으로 —

### I. 北韓對南政策의 背景

前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戰後時期에 있어서 南北韓의 「經濟建設競爭」은 北韓의 「일방적 勝利」로 귀착되었다. 北韓은, 金日成의 表現에 따르면, 「전고한 社會主義革命的 基地」가 되었다. 그러나 南韓은 經濟建設보다 「統一」에 政策의 優先順位를 부여하여 經濟建設에서 뒤떨어졌다. 美國과 유엔으로부터 이 時期에 每年 20 億弗 이상이라는 大量의 經濟援助가 流入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南韓의 經濟成長率은 4.5%에서 정체되어 있었다.<sup>59)</sup> 한 著名한 研究家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李承晚政權은 「신속한 變化와 社會的 激動의 時期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社會的 變化에 적응해 나가기 보다는 오히려 그 變化에 저항하려는 方向으로 움직여 나갔다. … 따라서 새로운 國民的 同一性(national identity)가 건설되어질 수 있는 바탕인 再建과 發展의 課業들은 優先權도, 注目도 받지 못했다<sup>60)</sup>」.

이처럼 南北韓의 힘의 隔差가 벌어진데다가, 국제적 狀況도 北韓 쪽으로 50年代보다는 어느 정도 유리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즉 50年代 中半 以後부터 아시아·아프리카의 新生中立國家들이 유엔에 가입하면서, 유엔의 韓國問題討議에 있어서 종래의 南韓代表

單獨招請에 異議를 제기하고, 南北韓同時招請을 주장하는 勢力이 增加했다.

이 같은 國內外的 狀況속에서 南韓의 李承晩政權이 崩壞되고 許政過政과 張勉政權이 수립되었으나, 政治·社會的 不安이 계속되자 北韓은 戰後 50年代의 自己防禦的인 「平和」政策에서 더욱 공격적인 政策으로 方向을 轉換하게 되었다.

## II. 北韓對南政策의 概觀과 變數

이 時期에 있어서 北韓이 對南問題를 다루는 態度에서 기본적으로 北韓「社會主義制度의 優越性」에 대한 「自信感」이 두드러지게 발견된다. 1969年 5月 5日 「로동신문」의 社說이 그 대표적例의 하나이다. 그 社說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北半部와 같은날, 같은 時에 해방된 南에서는 어떻게 人民의 生活이 자꾸 나빠가며 失業者와 食糧不足이 증가되고 있는가? 우리는 失職과 貧困이란 전혀 모르고 있다. 우리 人民의 生活水準은 날로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事實은 體制의 差異, 政策의 差異, 指導力의 差異에서 오는 것이다<sup>61)</sup>』

北의 南에 대한 공격적 姿勢의 또하나의 要因은 李承晩의 몰락에 있다. 李承晩은 南北韓을 통털어 代表的인 獨立運動家의 하나였다. 따라서 한 學者가 지적한 바와 같이, 李承晩의 沒落은 南韓에게는 「南韓政府가 韓國獨立運動과의 連續이라는 主要象徵의 喪失을 의미했고, 南北韓間的 「正統性競爭에 있어서 金日成에게 유리한 逆展開(counter-trend in the legitimacy contest between two

Koreas in favor of Kim Il-Song)]을 의미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62)

이 時期에 北韓은 南韓에서 學生革命에 따른 不安定한 政治的·經濟的·社會的 狀況을 充分히 이용하면서 대대적인 宣傳攻勢를 전개했다. 北韓의 對南宣傳攻勢에서는 3개의 主題를 把握할 수 있다.

『첫째, 南韓의 「비참한」 經濟狀況은 祖國의 分斷때문이며, 따라서 祖國의 統一에 의해서만 그 問題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南韓에 있어서 美軍의 駐屯은 統一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要因이다. 셋째, 「民主」原則, 즉 共產主義原則을 南韓에 적용함에 의해서만 統一은 平和의으로 성취될 수 있다 63)』

이처럼 北韓의 對南姿勢의 出發點은 南韓에 있어서의 정치·경제·사회적 不安定이었다. 이 時期에 대해 北韓을 대변하는 한 公式刊行物은 다음과 같이 썼다.

『南에 있어서의 狀況은 美帝國主義의 殖民地支配體制에 있어서의 深刻한 危機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64)』

이러한 北의 「自信感」에서 나온 것이 1960年 8月 15日 金日成이 제의한 南北聯邦制를 포함한 포괄적인 南北交流 및 協商案이다. 65) (勿論 1958年 東獨의 울브리히트가 西獨에 대해 聯盟制=Confederation를 제의한 것에서 金이着想했을 可能性도 있다) 이 案에서 첫째, 金은 北韓이 제네바會議以後 주장해오던 「中立國監視委員會」에 의한 總選案項中 「中立國監視委員會」語句를 제외시켰고 「外國의 어떠한 干涉없는」이란 文句를 강조하고 나왔다. 이것은 그만큼 北이 스스로의 自信感에서 「民族主義」 및 「主体性」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이 提案들은 종전보다 훨씬 經濟交流에 力點을 두고 있다. 이것은 『南韓의 悲慘과 經濟의 破局은 오직 北韓의 남아들아가는 資源과 生產品을 받아들임에 의해서만 구제될 수 있다』는 宣傳要素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sup>66)</sup>

셋째, 南韓内部에서의 革新系의 「中立化統一論」「南北協商論」등 이른바 「自主統一運動」勢力的 登場은 北韓으로 하여금, 對南強硬論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한 要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北韓當局은 李承晚 政權治下에서 禁壓되어 있던 「自主統一運動」勢力이 「美帝植民統治의 破綻」에 힘입어 表面化되었다고 판단했으며, 이 勢력에 동조·지원함으로써 「統一」勢力을 증대시키고 결과적으로 張勉政權을 窮地에 빠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 第6章 5·16以後 1960年代에 있어서北韓의對南政策

— 그 성격과 政策形成의 變數를 中心으로 —

### I. 北韓對南政策의 基本性格

우리는 前章에서 戰後 50年代 中·後半에 經濟建設에서 南韓보다 優位에 서게된 北韓이 1960年 第1共和國의 崩壞와 더불어 발생한 南韓内部의 諸混亂을 逆用하여 보다 공격적인 對南姿勢를 취하게 되었음을 분석했다. 本章에서 고려되는 時期(1961년 5월 16일 - 1970년 末)에 있어서는 北韓의 공격적인 對南姿勢가 더욱 더 強化내지 硬化된다. 『南北間의 직접적인 協商에 의한 平和統一』을 표방하면서도, 北韓政權은 스스로의 궁극적 目標가 이른바 「民族解放戰爭」의 戰略에 의해, 南韓을 共產化하는 것임을 공언하고 나섰다. 北韓의 이러한 公言은 1968年 武裝共匪의 靑瓦台奇襲事件, 美艦우에블로号 拉北事件, 東海岸共匪浸透事件 등 行動으로 나타났다.

### II. 北韓對南政策의 展開

#### (1) 強調點의 轉換: 「平和統一」에서 「朝鮮革命」으로

北韓의 對南政策樹立의 「環境」은 南韓에서 1961年 5월 16日 軍部쿠데타의 發生에 의해 크게 바뀌었다. 軍部指導層의 「反共」을 「國是의 第一義」로 내세웠고, 張勉政府時代에 南北協商을 주장하던 革新勢力들을 검거했다. 軍部の 反共姿勢를 인식한 北韓政權은 이

에 軍部쿠데타가 「美帝」가 「파시스트軍部獨裁」를 樹立함으로써 「그들의 植民統治의 危機」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 쿠민 「陰謀」라고 비난했다<sup>67)</sup>

南韓에 있어서 강력한 反共軍事政權의 出現은 北韓政權에게 協商에의 모든 길이 봉쇄 당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 점이 北韓의 韓國統一問題에 대한 「平和」接近法보다 「공격적」接近法으로 強調點을 전환한 變數의 하나일 것이다.

北韓이 「平和」接近法에서 「공격적」接近法으로 方向을 전환했다는 証拠는 金日成이 행한 3個의 主要演說에서 발견된다. 그 演說들은 ① 1961年9月11日 勞動黨 第4次大會에 대한 金의 報告<sup>68)</sup>, ② 1964年2月 勞動黨中央委 第4期 第8次總會에서의 金의 演說<sup>69)</sup>, ③ 1965年4月14日 인도네시아의 알리 아르함社會科學院에서의 金의 演說들을 가르친다. 이 3個의 演說들은 4年 간격을 두고 행해진 것이지만 그 主題와 內容은 동일하다.

이들 演說에서 金日成은 北韓政權의 궁극적 目標는 「社會主義革命過程을 통한 朝鮮의 統一」임을 명백히 했다. 金은 北韓에 있어서 現時點의 「革命的 課業」은 「社會主義의 建設」이며, 南에 있어서의 「革命的 課業」은 「反帝·反封建 民主革命」이라고 말했다.

1953年과 1956年의 勞動黨大會에서 金은 北韓을 장래의 統一을 위한 「전고한 民主基地」로 만들 것을 강조한 바 있다.

1961年 그의 演說에서, 金은 北韓政權이 3個年計劃(1954-56年)

과 5年計劃(1957-61年)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에 의해 그 目標을 이미 달성했다고 호언했다.

金の 表現을 빌리면, 『黨은 祖國의 北半部를 朝鮮革命의 확고한 基地로 건설했으며, 祖國의 平和統一을 촉진시키기 위한 淸정적 勢力으로 변전시켰다.』<sup>70)</sup>

『南韓革命』에 대해 金은 5段階論을 제시했다. 第1段階는 『南朝鮮人民들이 革命運動에 쉽게 動員될 수 있도록 南朝鮮人民들을 깨우치는 段階』이다. 이 課業은 「매우 重要할 것이다. 왜냐하면 『南朝鮮人民의 상당한 部分은 아직도 敵의 反共宣傳에 몰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南朝鮮革命의 發展에 대한 이 重要한 障礙는 人民의 教育에 의해 제거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金은 主張했다.』<sup>71)</sup>

第2段階는 「南朝鮮革命의 主要勢力의 組織化」이다. 金은 『勞動人民의 政黨의 不在로, 南朝鮮人民은 過去時期에 있었던 값비싼 鬭爭의 열매를 걸우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광범한 大衆의 광범한 利益을 擁護하며 마르크시즘-레닌이즘에 의해 영도되는 革命政黨의 樹立』을 역설했다.

그러면 「南朝鮮革命의 主要勢力」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金에 의하면, 「主要勢力(主力部隊)」은 『南朝鮮革命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勞動者와 農民 및 그에 기초한 共產黨』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主要勢力」의 「組織化」란 南韓에 地下共產黨을 조직하고 그 周圍에 勞動者와 農民을 結집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sup>72)</sup>



「主要勢力」内の 配置에 대해, 金은 勞動階級만이 指導階級이라고 지적했다. 農民은 勞動者階級보다 더 弱하기 때문에 오직 勞動者階級の 指導下에서만 「主要勢力」에서 하나의 役割을 수행할 수 있다고 金은 지적했다.

第3段階는 「統一戰線形成」의 段階이다. 이 戰線은 『革命政党的 基礎위에서 모든 社会階層을 포괄하고, 勞動者, 農民, 모든 勤勞人民을 밀접히 단결시킨』戰線이다<sup>73)</sup>. 이 段階에서는, 金에 의하면, 共產主義者들은 『朝鮮의 平和統一을 위해 나서는 者라면 그의 過去의 行爲, 階級成分, 社会的 地位, 政治的 見解, 宗教的 信仰을 가릴것 없이, 손에 손을 잡고』일해야 한다. 金은 그 「統一戰線」을 「反美救國統一戰線」이라고 명명하고, 그 까닭은 「南朝鮮革命」을 惹起시켜야만 할 動機인 「南朝鮮内の 基本矛盾」은, 「美帝」와 그의 「앞잡이」(例컨대, 地主, 資本家, 政治支配層)를 一方으로 하고 勞動者, 農民, 都市프롤레타리아트, 民族資本家를 他方으로 한 兩者사이의 矛盾이라고 지적했다. 金은 이어 『모든 南朝鮮人民들은 美帝國主義者들의 植民統治 아래서 苦痛을 겪고 있기 때문에』, 南韓에서 「反美救國統一戰線」을 형성할 「객관적 情勢」가 있었다고 지적했다<sup>74)</sup>

第4段階는, 사보타지(怠業)와 非協力에 의해, 「美帝와 그 走狗들」을 「축출」하기 위한 「적극적 行動」을 취하는 段階이다.

그리고 第5段階는, 「民族解放鬭爭」을 強化함에 의해, 南韓에서 모든 「反動」勢力을 「打倒」하는 段階라고 金은 규정했다. 이 段階에서는, 『勝利는 오직 暴力手段에 의해서만 획득할 수 있다』

고 金은 주장했다.

金은 결국 統一은 ①北韓의 「革命基地」를 北韓에 社會主義를 성공적으로 건설함에 의해 정치적·경제적·군사적으로 더욱 강화고 ②南韓의 「人民」들을 정치적으로 깨우치고 밀접히 제휴시킴에 의해, 南韓에 있어서 「革命勢力」을 강화하고 ③「朝鮮人民」과 「國際革命勢力」간의 紐帶를 강화함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sup>75)</sup>

「朝鮮革命軍을 위한 基地」(=北韓)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北韓政權은 北韓의 모든 經濟計劃 가운데 가장 야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7 個年經濟計劃(1961-67年)을 시작했다. 이計劃은 北韓의 工業과 農業部門의 대규모 近代化를 꾀하고, 두 部門에서 量과 質에 있어서 生産의 현저한 增加를 目標하고 있다.

이計劃은 總工業產出에 있어서 年 18%의 增加를 목표하고( 따라서 이計劃대로 추진된다면 1967년의 工業總產出은 1960年의 3.2배가 된다)있고, 農業生産도 自給自足の 水準에서 600-700 만톤을 상회하도록 목표하고 있었다.

金은 이처럼 經濟建設을 계속 추진하면서, 經濟的 頹落도 단행했다. 1961年 9月 第4次 黨大會가 召集되었을 때, 이른바 「抗日계릴그룹」이라는 金日成그룹의 主要政策決定機關으로의 上昇은 뚜렷했다. 黨中央委의 議長과 5명의 副議長中 3명이 이 그룹에서 選출됐다. 黨政治委員會의 多數와 中央委의 26委員 가운데 14명이 이 그룹에서 選출됐다.<sup>76)</sup>

이와 同時에 軍事的 準備도 강화했다. 南韓에서의 軍部쿠데타 2개월 뒤인 1961年7月 金日成은 蘇聯과 中共을 각각 방문,

兩國과 각각 「相互防衛條約」을 체결했다. 北韓政權은 또한 자신의 軍事力을 증대시키기 위해 1962年11月 軍事使節團을 모스크바에 파견, 새로운 軍事援助를 요청했다. 그러나 西万과의 데탕트를 추구하는 蘇聯에 의해 冷待를 받았다.<sup>77)</sup>

蘇聯으로부터의 冷待와, 1962年10月 「쿠바 미사일危機」에서의 후르시초프의 對美「宥和」政策은, 北韓으로 하여금 中·蘇紛爭에 있어서 中共의 立場에 기울게했다. 이와 동시에 「4대 軍事路線」을 攄하게 되었다.<sup>78)</sup>

## (2) 軍事路線의 強化

1965年 中半부터, 北韓政權의 對南姿勢는 더욱 硬化되었다. 그 要因으로 대개 다음과 같은 點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1965年2月20日 韓·日基本關係條約이 假調印되고 6月22日 本調印되었는 바, 北韓은 이 條約의 締結을 위한 交渉當時부터 이를 美·日·韓國 3個國의 「軍事同盟」의 出発이라고 비난해왔다. 北韓은 韓·日基本條約이 日本의 再武裝을 전제로 韓國에 대한 美國의 防衛役을 日本이 대신 맡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韓·日條約의 締結을 契機로 日本의 「東北亞侵略」이 개시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日本의 軍國主義는 이미, 부활되었으며, 美帝의 韓半島侵略의 突擊部隊로 사용될 것』이라는 北韓의 主張은<sup>79)</sup> 韓·日基本關係條約에 대한 北韓의 「두려움」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둘째, 北韓政權은 1964-65년에 있어서 南韓의 정치적 狀況이 北韓이 표방해온 「民族解放戰爭」을 개시하기에 좋을 만큼 惡化되었다

고 판단했을지 모른다. 1964年3月부터 1965年-9月間的 1年6個月 동안, 南韓政府는 韓·日條約의 交渉과 締結에 반대하는 「街頭에서의 장기적이며 격렬하고 광범한 大衆鬪爭」(the long, intense, and widespread popular struggles in the streets)에 극도로 시달렸다<sup>80)</sup> 이 時期에 약 延3百萬名의 大學生들과 최소한 50萬名의 國民이 示威, 集會, 絶食同盟(hunger strike), 討論, 抗議聲明에 참여했다<sup>81)</sup>

이러한 諸混亂은 北韓指導層으로 하여금 南韓이 베트남型的 顛覆運動에 「취약하다」는 認識(perception)을 갖게 했는지 모른다. 事實, 「南朝鮮革命」을 수행할 目標 아래, 「統一革命黨」이 비밀리에 南韓에서 조직된 것이 이때였다<sup>82)</sup>

특히, 美軍의 相當數가 베트남에 묶여 있는 實情에서, 南韓에서 게릴라戰을 개시하는 것도 완전히 무모한 實驗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세계, 南韓의 經濟狀況에 있어서의 改善가 北韓의 對南姿勢의 硬化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北韓이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南韓의 經濟는 더 強해질 것이며, 北韓의 南韓에 대한 呼訴力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sup>83)</sup>

내제, 北韓의 好戰性은 金日成의 國內政治的 需要와의 函數關係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무렵(1965年中盤)까지에는 北韓의 7個年計劃(1961-67年)이 그 目標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 따라서 南으로부터의 漸增하는 軍事的 威脅과 日本의 軍國主義를 강조함에 의해, 金日成은 同計劃의 明白한 失敗에 대한 責

任을 內的 要因에서 外的 要因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바  
꿔말하여, 그의 政策과 리더십은 정확하였으나, 군사적 準備가 資源(re-  
sources)의 分散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는 論理를 전개할 수 있  
었을 것이다.<sup>84)</sup>

이러한 要因들이 北韓政權으로 하여금 北韓의 軍事化와 南韓의 「革  
命化」를 더욱 촉진하도록 만들었다. 1966年10月5日 勞動黨代表  
者會議에서 金日成은 南韓이 「진정하고 즉각적인 威脅」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南韓이 美國과 日本에 「부족임을 받아」 北韓에  
대한 새로운 「戰爭準備」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비록 그러한  
「威脅」이 없다고 해도, 統一問題에 대한 유일한 解決方案은 『南韓  
에서 美帝侵略者를 축출하고 그들의 「追從者들」을 멸살시키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北韓은 南北韓에 똑같이 「革命基地」를  
강화할 努力을 가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革命能力」은 「經  
濟能力」에 달려 있으므로, 北韓은 결코 工作化計劃을 걸대로 늦춰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金은 「軍事建設과 經濟建設을 함께 하  
자」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軍事費를 增額해야 하기 때문에 7個年計  
劃을 3年 더 연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sup>85)</sup>

이러한 軍事路線을 추구하면서, 北韓政權은 「全国土의 요새화」 「全  
人民의 武裝化」 「全軍의 近代化」 「人民軍의 質的上昇」 등의 슬로  
건을 강조했다. 이 슬로건들을 실천하기 위해, 北韓의 國防費는 19  
68年 豫算에서는 6億5千2百萬弗로 증가했다. 이 額數는 1967  
年보다 1億7千2百萬弗의 增額이며, 68年 全体豫算의  
30.9%를 차지한 것이다. 이와 同時에 「思想改造」를 包含

한 北韓版 「文化革命」을 강조했다.<sup>86)</sup>

이처럼 「軍事路線」을 강화하면서, 對南共匪浸透作戰을 감행했다. 1968年1月の 靑瓦台共匪奇襲事件, 푸에블로호 拉北事件, 11月の 東海岸浸透事件등이 그 例들이다. 한 研究는 이 時期에 있어서 北韓의 對南提議 가운데 「聯邦制」와 같은 「平和統一」의 테마는 완전히 빠져있었다.<sup>87)</sup>

왜 北韓은 이러한 무모한 軍事路線을 執했을까? 한 北韓專門家는 다음과 같이 추정하고 있다.<sup>88)</sup>

첫째, 北韓은 南韓을 混亂에 빠뜨림으로서 南韓經濟에 직접적 損失을 끼치고 外國投資의 對韓流入을 저지시키려고 했다.

둘째, 暴力的 行動으로 南韓에서 恐怖와 未來에 대한 不確實性的 霧圍氣를 만들어냄으로써 南韓政府의 정치적 安定性を 무너뜨리려고 하였다.

셋째, 이러한 暴力的 行爲들은 金日成이 北韓의 全住民에게 『北韓兄弟의 救援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南韓兄弟들을 돕기 위해 經濟·國防의 努力을 倍加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는 口實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事件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逆効果를 가져왔다. 왜냐하면, 그 事件들은 北韓의 好戰性을 극적으로 노출시킨 것이었고, 美國과 大韓民國으로 하여금 大韓民國의 國防力을 크게 강화시킨 結果를 가져왔다. 더군다나 이 事件들은 南韓住民들의 反共姿勢를 더욱 굳히는 結果를 가져왔다.<sup>89)</sup>

이러한 逆効果(北韓의 立場에서 볼때)를 감안,北韓은 南韓에 대한 挑発行爲를 감소시킨 것 같다. 그 証拠로 1969년에는 北韓의 對南挑發行爲의 件數가 減縮되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1968년에는 北韓의 對南浸透要員과 南韓當局간의 충돌件數는 629件이었고, 이 件에서 죽거나 체포된 北韓要員은 321名이었음에 비해 1969년의 1月에서 8月까지는 불과 96件의 충돌件數 밖에 없었으며, 죽거나 체포된 北韓要員은 48名에 불과했다.<sup>90)</sup>

衝突件數의 激減에 반비례하여,北韓政權의 對南提議 또는 對南宣伝에 있어서 「平和統一」의 테마가 강조되는 回數는 월선 늘어났다. 1969年 6月 18日의 「朝鮮中央通信」은 『우리는 南侵할 意圖가 전혀 없다. 우리는 朝鮮의 統一을 武力으로 해결할 意圖가 전혀 없다<sup>91)</sup>』고 주장했다. 이러한 主張은 1968年 9月의 金日成의 演說과는 크게 대조되는 것이었다. 이 演說에서 金은 『①朝鮮이 統一된다면, 그 統一은 朝鮮人民 스스로의 鬪爭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②統一은 南朝鮮에서 革命을 조장시킴에 의해서만 가장 잘 촉진될 수 있다. ③革命이 그 스스로 성숙되지 않는다면, 革命에 유리한 狀況이 南朝鮮에서 창조되어야 한다』고 공언했었다.<sup>92)</sup>

왜 北韓은 이처럼 새로운 戰略을 취하게 되었는가? 이 問題에 대한 解答은 다음 章에서 시도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략히 언급한다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北韓의 對南挑發戰略이 오히려 逆効果를 가져왔다는 點과, 새로 나타난 닉슨 독트린에 대한 北韓의 純善적 反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美國內에서는 美

국의 「過度한 아시아介入」을 반대하는 輿論이 높았고, 이에 따라 美國의 아시아「撤収」(disengagement)를 의미하는 닉슨 독트린이 나왔던 것이다. 따라서 北韓은 오히려 韓國에서의 武力衝突을 약화 시킴으로써 駐韓美軍의 撤収를 요구하는 美國内の 輿論을 합리화시켜 주려고 제안한 것임에 틀림없다.



## 第7章 東北亞秩序의 改編과 南北對話의 開始

### I. 國際環境의 變化

70年代에 들어서 南北關係의 改善을, 가로 막고 있던 障礙要因 가운데 國際的 要因은 크게 풀렸다. 東아시아에 있어서 이른바 「4極體制」라고 불리는 美·蘇·中共·日本사이의 새로운 힘의 編成과 이에 따른 그들 사이의 테탕트는 韓國問題의 국제적 環境을 극적으로 개선시켰다. 世界에서 韓半島 하나만이 4強이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地域임을 고려할 때, 그들 사이의 關係變化가 韓半島에 중대한 影響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은 當然한 論理의 歸結이라 하겠다.

국제적 「變數」로 北側의 對南政策에 變化를 가져오게 한 것으로 美·中共間의 테탕트를 지적할 수 있다. 美·中共間의 테탕트 成立의 背景에 대해서는 筆者가 그의 다른 論文<sup>93)</sup>에서 詳述한 바 있어 여기서는 重複을 피하기로 한다. 다만, 略述하면 다음과 같다.

美國外交政策의 가장 중요한 對象地域이 蘇聯임은 周知의 事實이다. 美國은 70年代의 世界政治에 있어서도 역시 美·蘇 兩大國의 關係가 基調를 이룰 것으로 보았다. 오직 이 超強大國만이 世界의 戰爭과 平和를 左右할 核力과 채래식 軍事力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美國外交政策의 對象地域이라는 視点에서 中共은 蘇聯에 비해 副次的이다.

그런데 70年代의 美·蘇關係는 過去와는 大히 달라졌다. 50年代와 60年代의 國際政治를 美·蘇의 兩頭支配體制로 설명하고 있으나, 그것은 美·蘇間의 勢力均衡 위에서가 아니라, 美國의 軍事적 優位에 대한 蘇聯의 挑戰과 이에 대한 美國의 反戰으로 전개되어 왔던 것이다.

蘇聯은 특히 美國과의 平和共存體制를 이용, 核武器의 開發과 生産에 注力하여 戰略的 軍事力에서 美國과 均衡을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核武器의 多樣성과 運搬手段의 精確性에 있어서는 美國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蘇聯은 彈道彈 요격미사일 (ABM) 網에서 우세할 뿐만 아니라 美國에 대한 충분한 第2加濯能力을 갖고 있다.

이렇게 대등한 地位로 향상한 蘇聯을 상대로 世界의 主要問題를 一括處理하려는 美國에게 中·蘇對決은 蘇聯의 「아킬레스의 踵」으로 보였다. 換言하면, 美國이 中共과 對峙를 이룩한다면, 對美交涉에 參與하는 蘇聯의 立場은 그만큼 弱化되고 따라서 美國에 대해 좀더 순응하게 될 것이라는 計算이다. 美國도 결국 中共으로써 蘇聯을 견제하는 以夷制夷之計를 採択한 셈인데, 蘇聯이 애초에 美·中共對峙를 反蘇陰謀라고 비난했던 所以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美·中共對峙는, 中·蘇紛爭을 교묘하게 이용해 온 北韓도 어쩔수 없이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추구하는 國際大勢를 일단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 美國과의 對峙에 즈음하여 中共首相 周恩來는 韓半島에는 18年間 停戰이 계속되고 있으며 戰爭狀態가 아직 종결되지 않고 있다는 事實을 지적하고

戰爭狀態 終結을 위한 南北間의 平和條約締結에 關係 언급했던 것이다. 즉 『美·中共和解는 美·中共交戰의 유일한 場所로서의 韓半島에서의 戰爭狀態 終結을 요구한 것』이며 『中共이 休戰協定調印 當事者라는 유일한 立場을 平蘇政權에서 살릴 수 있다면 이 關係된 中共의 南·北韓關係의 正常化에 대한 關心은 클 수 없었던 것이다. 94)』

그러면 이러한 國際的 變數에 대한 北韓의 內的狀況은 어떠한 것이었나? 95)

北韓勞動黨 規約은 그 前文에서 『朝鮮勞動黨은…… 우리나라 南半部를 美帝國主義 侵略者들의 独占과 그 走狗들의 反動統治로부터 解放하고 民主주의적 基礎위에서 祖國의 완전한 統一을 달성하기 위해 鬭爭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北韓政權의 存在의 正當性은 南韓解放에 根拠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南·北韓間의 對話도 北韓에게는 南韓「解放」戰略의 一環인 것이다. 즉 共產化統一을 위한 戰術的 次元에서의 南北對話까지 배제할 必要는 없다는 解釈에서 北側은 南·北對話에 나왔던 것이다.

이러한 角度에서 北의 南·北對話를 통한 戰略을 세가지로 分析해 볼 수 있다. 96)

첫째, 對話對象의 擴大戰略이다. 北韓은 南韓革命力量의 基本階級을 勞動者·農民에 두고 그 補助力量으로서 青年·學生·知識人·民族資本家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金은 南·北對話의 開始와 더불어 對話의 對象擴大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大民族會議」案등을 내놓고 있다. 그 까닭은 ① 對話擴大는 政治宣傳上 유리한 名分을

값이라고 判斷이다. 즉 民族全體의 問題인 南北對話에는 모든 階  
層의 意思와 立場이 「민주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名分이다.

② 南北對話와 協商過程에서 多元的 自由民主體制을 基本으로 하는  
韓國內의 합법·비합법적 組織을 등장시켜 南·北間 政治協商의 過  
程에서 南韓側을 混亂시키겠다는 計算이다.

둘째, 韓國의 政治體制 變質要求이다. 南·北對話의 進陞을 위해  
소위 「法律的 條件」과 「社會的 環境」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主  
張으로서, 反共法과 國家保安法의 廢棄와 反共團體의 解散을 요구하  
는 것이다.<sup>?)</sup>

北韓이 韓國政治體制의 變質을 요구한다면, 北韓도 「프롤레타리아」  
階級獨裁의 變質을 감내해야 한다. 그러나 北韓은 소위 「民主基  
地」論을 내걸고 南韓革命의 基地로서 北韓體制의 強化를 주장하던  
서 전혀 相互性의 原則을 수락하려 하지 않는다.

셋째, 「美軍撤收」라는 協商條件의 設定이다. 北韓이 統一問題와  
관련,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把握하고 있는 것은 韓·美間의 紐帶  
와 특히 美軍의 駐屯問題이다. 바꿔 말하여, 北韓의 統韓政策이나  
路線은 궁극적으로 韓國에서 美軍을 撤收시키겠다는 點으로 돌아간  
다. 그러니까 아주 출여서 말한다면, 北韓의 모든 提案의 核心은  
「美軍撤收」를 촉진하는 問題이며, 大韓民國側의 提案에 대한 反應  
도 그것이 「美軍撤收」와 어떻게 관련된 것이냐가 基準이 된다.

왜, 「美軍撤收」가 핵심인가? 北韓의 공식 설명에 의하면 『美軍  
撤收가 이뤄지면 빨리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다. 美軍이 물러가  
면 韓國의 정치적·경제적 安定은 무너지고, 大韓民國 政府도 崩壞

될 것이며 「진보적이며愛國的인人士들」이 집권, 北의 統一方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이다. 비록 政府가 崩壞하지 않는다 해도 政府는 「진보적이며愛國的인人士들」의 要求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北側의 이 부드러운 論理展開 뒤에는 「暴力」이 숨어있다. 美軍이 물러나면, 어떻게 「진보적이며愛國的인人士들」이 집권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것은 결국 「暴力」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北側은 감추지 않는다. 이것은 결국 앞에서 지적한 南韓「革命」論의 延長에 지나지 않는다. 美軍의 駐屯이 韓國의 「革命」을 막고있다는 主張으로 귀납되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北側이 南韓의 提議를 검토함에 있어서 제1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바로 이「美軍撤收」의 問題이다. 例컨대, 南韓의 不可侵協定提議(1974年1月18日)에 대한 北韓의 拒否反應의 核心은 그 提議속에 美軍撤收問題가 빠져있는데 있다. 따라서 北의 對韓(또는 對外) 政策의 決定의 가장 중요한 「變數」는, 어떤 특정한 行動의 코스나 提議가 美軍撤收를 앞당기느냐의 與否이다. 北韓과 美國과의 文化 및 經濟的 接觸도 이 判斷의 「變數」에 의해 左右될 것이다. 바꿔 말하여, 제한된 範圍에서 美國과의 文化 및 經濟的 接觸이 오히려 現在의 美國의 對韓政策 - 北韓의 視角에서 볼 때 韓半島의 分斷國定化-을 擁護하고 정당화하는 結果를 가져온다고 믿을 때는 그러한 接觸을 포기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接觸이 美軍撤收를 촉진시킨다고 판단되면 某種의 措施로 들어갈 것이다.<sup>28)</sup>

「美軍撤收」의 「變數」와 더불어 특히 70年代에 있어서 北側의 對南政策에 影響을 미친 重要「變數」로 유엔「變數」를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諸般「變數」를 綜合, 北韓의 對美「平和條約」提議를 분석하기로 한다.

平壤의 「最高人民會議」는 74年3月25日 美國에 대해 「平和協定」의 체결을 제의했다. 이提議에서 北側은 現行 休戰協定이 軍事的 休戰에 관한 協定이므로 영구한 平和를 보장할 수 없으며 現行 休戰協定이 平和協定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면, 前者에 서명하고 유엔軍司의 實權者인 美國과 그 問題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提議에 대한 動機로 세가지 要因을 분석할 수 있다. 첫째, 平壤은 제29차 유엔總會를 念頭에 두었던 것이다. 즉 「平和協定」을 理由삼아 駐韓 유엔軍司의 解体와 美軍撤收를 주장하려 했던 것이다. 둘째, 美議회의 輿論을 자극, 美軍撤收의 壓力을 받게 하는 것이다. 셋째, 韓·美間의 갈등을 심화시켜 이간시키자는 것이다. 비록 韓·美間의 不和를 넓히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은 韓國에 대한 美國의 公約의 深度를 시험해 볼 수 있고 平壤과의 정치적 對話에 대한 美國의 意圖를 타진할 수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sup>99)</sup>

綜合컨대, 北韓은 「南北對話를 對南赤化戰略에 기여케 하는 戰術問題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로 南韓事態가 안정되면 應해 나서고, 反政府의으로 격화되면 回避하는 方略을 구사해 왔다.<sup>100)</sup>」 그러나 그 어느것이든 그 같은 過程을 통해 赤化條件을 촉진하는데에 焦點을 맞춰 구체적 戰術을 전개해 왔다. 그러므로, 北韓은 이러한 原則에 立脚하여 對內的으로는 南北對話를 다음과 같이 活用하였다.<sup>101)</sup>

① 國際的으로 南·北韓 等距離外交를 유도하는데 活用했고,

6.23宣言이 나온 뒤에는 對話를 경제상태에 攄트림으로써

對유엔戰略에 이용코저 했다.

② 美軍撤収 實現을 위해 南北問題를 民族內部問題化하는 與件을 조성하는데 이용해 왔다.

③ 對話不振理由를 韓國의 「不誠實」한 態도와 韓·美結託에 基因하는 것으로 부각시켜 對內外心理戰에 活用하는 立場, 對內的으로는 이른바 思想, 物質的 樊塞化와 動員態勢를 강화하는데 이용했다.

73年 金英柱의 「8·28」聲明以後 對話를 거부해온 北韓은 1975年 6月 19日 蘇洲外相 윌리시 (Donald Willisee)를 통해 아무런 先行條件없이 南韓과 「意味있는 對話」(meaning ful talks)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提議가 나온 背景은 무엇일까? 그 要因들로 다음과 같은 點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sup>102)</sup>

① 인도차이나에 있어서 共產主義者들의 勝利가 南韓에 대한 金日成의 野心을 자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中·蘇는 이 時機에 있어서 노골적인 軍事的 行動에 대한 金의 熱望의 氣를 꺾었다.

② 「安保」에 대한 南韓의 準備 및 姿勢硬化, 南韓政府에 대한 美國의 확고한 公約,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이 日本의 利益에 긴요하다는 日本政府의 公式聲明등이 平壤의 強硬姿勢를 누그러뜨린 듯 하다.

③ 北韓經濟事情의 惡化를 들 수 있다. 北韓은 西歐로부터의

플랜트와 機械輸入을 증가시켰고 이로 인해 1974年 非共產  
國國家에 대해서만 5億弗의 貿易赤字를 냈었다. 北韓은 우  
선 「統一」보다 北韓의 「民主基地」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④ 金은 리타非同盟會議의 加入을 놓고 非同盟勢力의 支持를  
얻기 위해, 온전한 印象을 줄 必要가 있었다. 또한 제 30  
차 유엔總會에서 「韓半島戰爭危機」를 주장하는 南韓政府의  
主張의 基礎를 약화시키기 위해 平和攻勢를 취한 것으로 보  
여진다.



## 第 8 章 結 語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北韓의 對南政策은 北韓内部的 變數(權力鬭爭, 經濟建設), 南韓内部的 變數(政治的 安定度, 經濟發展度), 國際環境의 變數(中·蘇紛爭과 北韓, 韓國의 美國과의 關係, 第3 勢力的 登場) 등의 影響을 받으며 전개되어 왔다.

앞으로 이들 變數 가운데 중요한 것은 北韓内部的 變數라고 생각된다. 특히 金日成以後의 權力承繼와 그 權力承繼의 準備期와 北韓의 經濟建設度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經濟問題를 念頭에 두고 南北關係를 전망할 때 다음의 假說을 설정할 수 있다.

- ① 北韓의 經濟가 어느 정도 지속적인 발전을 示顯하는 경우, 그것은 스탈린체制的 統制經濟를 좀 더 自由化되고 非中央集權化된 經濟로 전환시킬 것이다. 北韓經濟에 대한 한 권위있는 分析은,<sup>103)</sup> 『北韓의 낮은 經濟發展率과 中央經濟計劃에 있어서 緩和의 欠如사이에는 어떤 相關關係(some correlation between North Korea's low rat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a general lack of relaxation in central planning)』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지속적인 經濟發展率의 低下는 南北關係의 擴大 또는 收斂에 逆作用하는 變數일 것이다.

- ② 1953年 休戰協定 締結以後 南北關係는 사실상 經濟競爭이 基調를 이뤄왔다. 이 點에서, 南韓經濟의 「급속한 成長과 성

공적인 팽창」과 北韓經濟의 沈滯라는 對比는 北韓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自信感도 잃게 하고, 더 好戰的이며 平和統一에 대해 덜 적극적으로 하는 變數라고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것은 반영하는 西獨經濟에 대한 東獨의 反應이 「베르린障壁」의 構築으로 나타난 獨逸例와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對比에 있어서는 北韓指導層의 南韓에 대한 認識(perception)이 더욱 重要하다. 南韓經濟의 여러가지 脆弱點에 더 注目한다면, 北은 南이 장기적인 眼目에서 볼때 「解放戰爭」의 可能地域으로 認識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러한 認識은 南에 대한 北의 姿勞를 輕화시킬 것이다.

脚 註

- 1) Il Sung Kim, Selected Writings of Kim Il Sung: Revolution and Socialist Construction in Korea(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1), PP. 99-110.
- 2) 이러한 要素들을 여러가지 側面에서 분석하고 있는 論文을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金裕南, “北韓의 对決政策: 「링케이자」 모델에 의한 分析,” 政經研究, 第127号(1975年8月), PP. 80~89. 이 論文의 어느 用語들은 本稿에서 그대로 빌려 쓰고 있다.
- 3) James N. Rosenau, “Per-Theories and Theories of Foreign Policy,” in James N. Rosenau(ed.), The Scientific Study of Foreign Policy(New York: Free Press, 1971), P. 113.
- 4) 김일성선집, I, 1963년도판, 平壤, PP. 26-27.
- 5) Foreign Broadcasting Information Service(F.B.I.S.), Daily Report, September 11, 1948.
- 6) Ibid.
- 7) Pak Hen En(朴憲永), “Heroic Struggle of the People of South Korea for Unity and Independence of the Country,” For A Lasting Peace, For A People's Democracy (Bucharest, Organ of the Cominform), No. 12(72), March 14,

1950, P.4:

- 8) U.S. Department of the Army,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repared by Roy E. Appleman,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Washington, D.C.:U.&G.P.O., 1961), Chapter II.
- 9) U.S. Department of the Army,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Washington, D.C.:U.S.G.P.O., 1962), P.69.
- 10) F.B.I.S., Daily Report, January 31, 1950, Far Eastern Section, Articles and Speeches, PP.11 ~ 13.
- 11) Izvestia, July 1, 1949 in The Current Digest of the Soviet Press(CDSP), Vol. I, No.27(August J. 1949), PP.22 ~ 23.
- 12) New Times(Moscow), No.29(July 13, 1949), P.18
- 13) F.B.I.S., Daily Report, June 13, 1950, PP.16~22
- 14) Ibid., June 26, 1950, Korea, CCC1~3
- 15) 이러한 觀察에 對해서는 Joungwon Alexander Kim, "A Comparative Study of the Role of A Leader in Political Development: Syngman Rhee in South and Kim Il-sung in North Korea," Unpub. Ph.D. diss., The Johns Hopkins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1967, PP.501

~11

- 16) 民族問題研究会(編), 朝鮮戦争史:現代史の再発掘(東京:コリア評論社, 1967) 중 第一部(林英樹執筆)
- 17) Roy U.T.Kim, "Sino-Soviet Dispute and North Korea," Unpub.Ph.D.diss.,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67, PP.68~79
- 18) 註7.
- 19) Pravda, June 22, 1950.
- 20) Robert R.Simmons, The Strained Alliance: Peking, Pyongyang, Moscow and the Politics of the Korean Civil War (New York:Free Press, 1975), PP.102-36.
- 21) 이計劃들은 蘇聯의 新經濟政策(NEP)의 模型을 踏襲한 것 이라고 한다. George M.McCune, Korea Today(Cambridge, Mass.:Harvard University Press, 1950), P.183.
- 22) 김일성선집, II (1953年版), PP.543~73.
- 23) John Kie-Chiang Oh, Korea: Democracy on Trial(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68), PP.32~33.
- 24) 李昊宰, 韓國外交의 理想과 現實: 李承晩外交와 美國 (서울:法文社, 1975), 第3版, P. 285.
- 25) 朝鮮日報, 1949年2月4日.
- 26) 註23, PP.33~34 參照
- 27) Donald G.Tewksbury(ed.), Source Materials on Korean Politics and Ideologies(New York: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50), P.145.

- 28) Morton A. Kaplan, System and process in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John Wiley & Sons, 1957), PP. 21 ~ 53.  
註 23, 第 3 編 參照.
- 29) F. B. I. S., Daily Report, March 27 ~ 29, 1951. 朴憲永의 報告書 속에서 再引用.
- 30) New York Times, December 9, 1950.
- 31)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Documents on International Relations, 1951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PP. 305 ~ 306.
- 32) F. B. I. S., Daily Report, March 27, 1951, Korea, CCC1 ~ 5.
- 33) 平壤放送, 1951年 7月 27日. 崔錫, 韓國統一問題에 대한 摸索: 韓國統一問題에 대한 共產陣營의 戰略과 戰術 (서울: 新文化社, 1968), P. 235에서 再引用.
- 34) F. B. I. S., Daily Report, August 20, 1951, Korea, EEE6 ~ 10
- 35) Ibid., September 14, 1951, Korea, EEE8 ~ 9
- 36) Ibid., January 13, 1952, Korea, EEE 10 ~ 17
- 37) Ibid., February 13, 1952, Korea, EEE 3 ~ 11
- 38) Ibid., April 21, 1952, Korea, EEE 10 ~ 16 and April 22, 1952, EEE 6 ~ 13.
- 39) Ibid., May 7, 1952, Korea, EEE 5 ~ 6
- 40) Ibid., November 10, 1952, Korea EEE 1 ~ 9.
- 41) Baik, Bong, Kim Il Sung, Biography (3 vols.: Tokyo: Miraisha, 1969), II, P. 389

- 42) Soon Sung Cho, "The Politics of North Korea's Unification Policies," World Politics, XIX, 2 (January, 1967), PP.218~41.
- 43) F.B.I.S., Daily Report, August 8, 1953.
- 44) Ibid., August 31, 1953.
- 45) Ibid., September 22, 1953.
- 46) Ibid., November 24, 1953.
- 47) Ibid., August 10, 11, 1953.
- 48) Il Sung Kim, "Character and Tasks of Our Revolution (April, 1955)," Selected Writings of Kim Il-Sung: Revolution and Socialist Construction in Korea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1), P. 23
- 49) Yoon T. Kuark, "Economic Development Contras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Joseph S. Chung (ed.), Patterns of Economic Development: Korea (Kalamazoo: The Korea Research and Publication, Inc., 1966), P. 157.
- 50) Soon Sung Cho, "Political Developments in North Korea: 1950~1966," in Andrew C. Nahm (ed.), Studies in the Developmental Aspects of Korea (Kalamazoo: Western Michigan University, 1969), PP. 149~50
- 51) Ibid., PP. 150~52
- 52) Chong-sik Lee, "Stalinism in the East: Communism in

North Korea," in Robert A. Scalapino (ed.), The Communist Revolution in Asia: Tactics, Goals and Achievement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69), P. 124.

- 53) F.B.I.S., Daily Report, April 30, 1956.
- 54) Yoon T. Kuark, "North Korea's Industrial Development during the Postwar Period," in Robert A. Scalapino (ed.), North Korea Toda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3), P. 53.
- 55) Chong-sik Lee, "The 'Socialist Revolution' in the North Korean Countryside," Asian Survey, Vol. II No. 8 (October, 1962), PP. 9~22.
- 56) F.B.I.S., Daily Report, August 31, 1953.
- 57) 로동신문, 1959년 1월 31일
- 58) 註 17, PP. 178~79.
- 59) Se-Jin Kim, The Politics of Military Revolution in Korea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71), PP. 23~24.
- 60) David C. Cole and Princeton N. Lyman, Korean Development: The Interplay of Politics and Economic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PP. 26~27.



- 61) 로동신문, 1960년 5월 5일
- 62) Joungwon Alexander Kim, "Pyongyang's Search for Legitimacy," Problems of Communism, Vol. XX (January April, 1971, Special Issue), P. 39.
- 63) Benjamin Byung-Hui Min, "North Korea's Foreign Policy in the post-War Decade, 1953-1963: Its strategy of Korean Unification and Relations with Moscow and Peking," Unpub. Ph. D. dis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1967, P. 92.
- 64) Byung Sik Kim, Modern Korea: The Socialist North, Revolutionary Perspective in the South, and Unification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0), P. 247.
- 65) 로동신문, 1960년 8월 16일
- 66) 註 42, PP. 233~34.
- 67) Baik, Bong, Kim Il Sung: Biography (3 vols. : Tokyo: Mirais-ha, 1969), III, P. 473.
- 68) 「조선로동당 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보고」 (평양: 1961).
- 69) 「로동신문」, 1969년 2월 27일
- 70) Selected Writings of Kim Il Sung PP. 41~42.
- 71) Ibid., P. 105
- 72) Ibid., P. 108

- 73) Ibid, P.109
- 74) 註67, PP.464~66
- 75) Selected Writings of Kim Il Sung, PP.109~110
- 76) Dae-sook Suh, "North Korea: Emergence of an Elite group," in Richard F. Staar (ed.), Aspects of Modern Communism (Columbia, S.C.: University of South California Press, (1968), P.322.
- 77) B.C. Koh, "North Korea: Profile of a garrison State," Problems of Communism, Vol. XVIII, No. 1 (January-February, 1969), P.24.
- 78) 한 學者는 北韓이 공격적인 意圖에서 이러한 路線을 택한 것인지 또는 방어적 입장에서 택한 것인지 淸정하기가 불가능하다고 說고했다. B.C. Koh, "Dilemmas of Korean Reunification," Asian Survey, Vol. XI, No. 5 (May, 1971), P.483.
- 79) Selected Writings of Kim Il Sung, P.112.
- 80) Kwan Bong Kim, The Korea-Japan Treaty Crisis and the Instbility of the Korean Political System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1), P.109
- 81) Ibid.
- 82) Byong Sik Kim, Modern Korea: The Socialist North, Revolutionary Perspective in the South, and Unification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0), PP.261

- 83) B.C.Koh, "The Pueblo Incident in Perspective," Asian Survey, Vol. IX, No. 4 (April, 1969), P. 271.
- 84) Ibid.
- 85)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제」, 근로자, 1966년 10월, PP. 2~54.
- 86) Soon Sung Cho, "North and South Korea: Stepped-up Aggression and the Search for New Security," Asian Survey, Vol. IX, No. 1 (January, 1969), P. 36.
- 87) Sheldon W. Simon, "The Pueblo Incident and the South Korean 'Revolution' in North Korea's Foreign Policy: A Propaganda Analysis," Asian Forum, Vol. II, No. 3 (July - September, 1970), PP. 202~203.
- 88) 註 83, P. 275.
- 89) 註 78, PP. 484~85.
- 90) New York Times, September, 21, 28, 1969.
- 91) F.B.I.S., Daily Report, June 18, 1969.
- 92) Il Sung Ki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the Banner of Freedom and Independence for Our People and the Powerful Weapon of Building Socialism and Communism, Report at the 20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Founding of the D.P.R.K., September 7, 1968 (Pyongyang: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 House, 1968).
- 3) 金学俊, 「韓半島에 대한 强大國의 基本構想」, 国土統一院學術  
用役(1975年), 75-1-45., PP.6~9
- 94) 朴奉植, 『南北對話의 國際環境과 內的狀況』, 北韓, 31호  
(1974년 7월), P.242.
- 95) 물음에 대한 答은 ibid., PP.243~45 參照.
- 96) Ibid
- 97) 北韓이 이것을 공식으로 제의한 것은 1972년 10월 24일이었  
다. 그러나 金日成은 72年 9月 17日 日本 마이니찌新聞과의  
會見에서 兩法의 施行을 「우리에 대한 공개적 挑戰」이라고  
비난했었다.
- 98) Young C. Kim, "North Korea's Reunification Policy: A  
Magnificent Obsession?" Journal of Korean Affairs,  
Vol. III, No. 4 (January, 1974), PP. 20~21.
- 99) 이 問題에 대한 자세한 分析은, Hakjoon Kim, "An Analy-  
sis of the Current Issues in the North-South Dialogue  
: The South Korean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IV, No. 2 (Spring, 1975),  
PP. 34 ~ 35.
- 100) 金素榮, "北傀의 對外活動과 對話戰術," 國際問題, 1975년  
3월, PP.87~88.
- 101) Ibid.

102) Jae-Eun Lee, "South-North Dialogue: A North Korean Peace Offensive?" Journal of Korean Affairs, Vol.V, No. 2 (July, 1975), PP.32~36.

103) Joseph Sang-hoon Chung, "North Korea's Economic System and Development: Recent Trends and Their Implications on Unification," in C.I. Eugene Kim (ed.), Korean Unification: Problems and Prospects (Kalamazoo, Michigan: The Korea Research Publications, 1973), PP.52~59.

